

수원 문양출방 전경숙

보육교사 【현장연구】 자료집



☎ 02)275-8505~6 FAX:275-8506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 02)275-8505~6 FAX:275-8506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목 차

- 1.보육교사의 연구일기와 그룹작업을 통한 재교육-1
운 선영 (효서대 보육교사보육원 강사)
 - 2.부모협력작업-14
한혜정,지정희,김효정 (아기자람터 교사)
 - 3.일본의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부모협력작업-19
박 찬 주(아기자람터 교사)
 - 4.초기적응- 23
오 윤 정 (통통어린이집)
 - 5.초기적응지도(일본 오사카보육원 4곳을 중심으로)-34
박 화 명(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
 - 6.식사지도-37
김 진 숙(새터어린이집 교사)
 - 7.일본의 식사지도-40
이 현 경(새터어린이집 교사)
 - 8.바깥놀이-43
전경숙(울망줄망어린이집 교사)
 - 8.일본의 바깥놀이-52
지연(웅기종기어린이집 교사)
 - 9.어린이 속의 TV- 56
이 윤 경(아현어린이집 교사)
 - 10.『소년기사 라무』-61
이 선 미(아현어린이집 교사)
 - 11.『순정 만화』-65
서 은 희 (어깨동무어린이집)
- 표-30 영유아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위한“적응”표준교육단계
• 표-49 야외수업일지

보육교사의 연구일기와 그룹작업을 통한 재교육

운 선영(효서대 보육교사보육원 강사)

I.. 들어가는 말

지난해 5월 나는 보육교사들과의 협력작업이 필요한 박사논문을 준비하기 위해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한국에서 아직 시도되지 않은 연구작업의 기본 방법을 소개하고자 영유아 관찰과 교사의 연구일기를 통한 자기 성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지역사회 틱아소 연합회에서 자그마한 강연을 했다. 그 내용은 우리네 아이들 96년 6월호에 실렸고, 같은 해 8월 보육교사 여름 연수회 때 교사가 스스로 개발하는 활동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나의 의도를 제안 했다. 여기에서 나의 의도란 보육교사가 주어진 교육의 내용을 이행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스스로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자아의식을 강화시킴으로서 교사(제)교육의 한계성(이론과 현실의 괴리, 교육제도의 모순 등)과 보육현실의 문제점(균등치 못한 보육환경과 보육현실, 보육제도의 낮은 인식도, 교사의 활동에 대한 불확신성 등)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의도는

보육교사들에게 그리 널리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내가 처음으로 보육교사 그룹을 형성해 본격적인 작업을 시도하려 했을 때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우선 우리네 아이들을 구둑하며 지탁연과 관련을 맺고 있는 교사들이 무척 제한되어 있다는 것과, 민간 또는 법인 그리고 국공립 시설을 막론하고 각 시설들이 서로 고립되어 폐쇄적인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사들 간의 단절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욱 심각했었기 때문에, 교사 및 시설 간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하자는 나의 의견은 그냥 귀신 씨나락 까먹는 이야기임에 불과 했다. 그러나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시도해 보기로 하고 죽이 되었다면 왜 죽이 되었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으로 나의 논문 방향을 바꾸기로 마음 먹었으며,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천안에서 교사 그룹을 조직했다. 원장들의 반응은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어린이집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교사들은 무척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진행에 어려움

이 많았다. 특히 원장들이 비협조적인 반응은 민간 시설이 서로를 견제하는 경쟁 관계에 놓여있다는 현실을 재 선감할 수 있었으며, 외관원 대접을 받을 때 마다 기존의 교육종교가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가 무색하게 기능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인이 파고 들기엔 엄청난 역부족이라는 좌절감도 있었다. 물론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다할 위치 또는 소속이 없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한국은 사람 그 자체 보다 직업이나 명예가 우선하는 곳 이니까. 그러다 지탁연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새로운 교사그룹이 형성되어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두 곳에서 그룹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동안 2주에 한번 6개월(서울)과 9개월(천안) 동안이 두 그룹 작업이 끝났고 다시 영어교사 그룹이 서울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다음에 그 동안의 교사들과의 공동 작업 중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교사들과의 연구 방법과 작업 요소(I)를 소개하고, 교사들의 연구 효과(II)를 들고, 여러분과 함께 제언(III)을 모아 보겠다. 동시에 나는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을 피하고 중간 중간 교사들의 질문을 받는 열린 강자를 하기를 제안하며 관심있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II. 연구일기를 통한 연구방법과 그룹작업의 요소

1.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 조직

연구 모임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욕구가 있어야 한다. 동기는 다른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와 단순한 호기심과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의한 참여가 있는데, 전자나 후자 모두 모임을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좋은 추진력이 될 뿐 만 아니라 교사들의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된다. 모임의 견고성은 교사들이 서로를 권하고 소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모임의 성격 및 내용의 효과적인 연계성을 위해

도우미가 있는 것은 그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도우미란 모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자를 말한다. 도우미는 모임을 조직하고, 사회를 보고, 회원간의 상호 관계를 돈독히 하며, 균등한 참여에 신경을 쓰고,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자극적인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전문 지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모임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도우미의 특성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역할을

제시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므로 전문 용어로 슈퍼바이저, 모데라토어, 코오퍼레이터 등으로 규정짓지 않겠다. 다만 도우미의 역할이 모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특히 권위주의적이거나 보수적인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전문가와 비전문가: Bankier's Konzept)를 선호하는 사람 보다는 교사들과 도우미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작업의 특성상 도우미의 역할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일의 깊이와 양에 따라 또다른 도우미가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모임에 대한 기록을 하는 사람이다. 그냥 오고간 이야기라도 특정한 주제나 상황에 따라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임에서 오고간 이야기들은 가능한 모두 담아두는 것이 좋다. 녹음을 하는 것은 녹음된것에 따른 작업이 필요하게 되므로 너무 번거로와 지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는 권하고 싶지는 않다.

모임의 분위기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

다. 왜냐하면 모임에 참가한 교사들이 서로 개인적인 교류가 별로 없고, 모임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교사의 개별적인 직업활동에 대한 예민한(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만났을 때에는 대부분 상당히 이색하고 조심스럽다. 모임을 부드럽고 안정성 있게 지속시키기 위해 우선 서로의 격리감과 이색함을 줄여야 한다. 초콜릿을 켜 놓고 차를 마시고 다과를 먹는든지 딱딱한 학교식의 좌석 배치를 피하고 둥그렇게 둘러앉아 편한 자세를 취하며 대화를 나눔으로서 서로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진지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분위기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개방적이고 외향적인 교사가 있는가 하면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교사도 있기 때문에 모두의 입과 귀를 열기까지 참가한 교사들의 지속적인 인내와 배려가 요구된다. 교사가 자기 반의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하듯이 말이다.

2. 연구일기

연구 모임은 그냥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해와야 할 숙제를 근거로 한다. 숙제란 바로 교사들이 현장에서 직업적인 활동을 하면서 기록하는 것으로, 현장과 교육을 잇는 중요한 다리가 되어 구체적인 사례를 남기고 그것을 토대로 한 원인과 결과, 여러가지 비슷한 또는 다른 경우, 방안 또는 대안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절대로 경시해서는 안되는 요소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 본 연구일기란 교사가 자신의 직업활동의 결을 높이기 위해 또는 변화를 주기 위해 아동, 다른 교사, 부모, 기타 그 외 보육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경험을 특정한 단서주제(또는 상황)에

따라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인 견해를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교사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연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계속 쓰는 작업이므로 연구일기(설현연구에서 사례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라는 이름을 쓴다. 다음에 지금까지의 작업을 토대로 교사들과 함께 개발한 연구일기의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다.

(1) 단서주제 또는 단서상황

연구일기를 쓰기 전에 우선 교사들은 공동의 관심사인 문제점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앞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 보고 싶은 주제 또는 상황을 정한다. 이것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해결해 주고 또한 문제의 핵심과 원인을 파악하게 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일 또는 상황이므로 단서주제 또는 단서상황이라 일컫는다. 한가지 단서주제 안에는 여러가지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예: 체벌, 문제아 등)을 미리 이야기를 나누어 주제의 범주를 좁힐 수 있는 단서개념(예: 체벌 중 벌의 종류와 효과 / 문제아 중 소외된 아이, 무는 아이, 잘 우는 아이)을 설정해 놓고 각자의 연구일기 기록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주제(예: 영아들의 욕구에 교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나 추상적인 테마(예: 아동-교사-원장-부모와의 관계, 정서교육, 안전지도)

는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관찰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토론 후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 관찰일기를 쓰기 전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도 해가 되지 않는다.

(2) 연구일기의 유형

1) 시설과 우리반, 아동의 소개: 다른 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시설과 반의 여러가지 환경구성, 여건, 교사 대 아동의 비율 등을 소개한다. 주제가 특정 아동을 중심으로 할 때에는 아동에 대한 개인적 상태(연령, 성별, 특성 등)도 소개한다. 이 정보는 주로 첫번째 연구일기에 사용되며 특정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부터는 생략할 수 있다.

2) 목표설정 또는 질문: 단서주제 또는 상황에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기 하거나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서술한다.

1 예: 우리반 강산이는 왜 나에게만 매달리는 것일까? 그 또래의 다른 아이들 처럼 어린이집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강산이를 도와줄 것인가?(주제 적용 중)

1 예: 나는 우리반 아이들에게 어떠한 체벌을 가하고 있는가? 체벌을 줄이고 교사와 아이들이 모두 만족스

러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주제 체벌 중)

1 예: 아이들은 왜 태혁이를 두려워하며 같이 놀려고 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태혁이를 두려워 하지 않고 태혁이가 와도 반가와 하며 놀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 소외되는 아이 중)

3) 교사 또는 아동의 주제에 관련한 행위범주: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해 오거나 보아왔던 교사 또는 아동의 행동 또는 반응을 의식적으로 적어본다. 이것은 관찰을 통하여 재 확인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지금까지의 체벌의 원칙, 우리반의 식사지도 유형과 같은 것을 정리해 보는것은 교사 및 원장의 다양한 철학, 방침, 규칙 등을 연구할 수 있게 한다.

1 예: 우리반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 다른 아이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밀기, 때리기, 꼬집기, 할퀴기, 발로 차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책을 찢거나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장난감이나 기타 교구물을 의도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교사의 물건을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 식사태도가 좋지 못한 경우(주제 체벌 중).

1 예: 우리반 식사지도의 원칙: 남기지 않고 다 먹도록 한다. 골고루

먹는다. 한 자리에 앉아서 먹는다. 싫어하는 음식은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주제 식사지도 중).

1 예: 태혁이를 소외되는 아이라고 결정한 이유: 태혁이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것들을 자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 태혁이가 매렸어요! 장난감을 빼앗아가요! 책을 가지고 가요 하면서 도움을 많이 요청한다. 태혁이는 아이들과 어울릴 때에는 자주 분쟁이 일어나며, 아이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는 경우가 잦다. 그리고 혼자 놀이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며, 아이들이 선생님, 태혁이 왔어요? 하고 자주 물어보며 안왔다고 하면 애들아, 태혁이 안왔대라고 말하며, 태혁이가 오지 않는 날에는 분쟁이 덜하다는 것을 선생님들은 많이 느낀다고 하여 태혁이를 관찰하고자 뜻을 모았다(주제 소외되는 아이 중).

4) 제 1차 관찰(약 1주일): 주제나 상황에 따라 특정한 상황(예: 식사지도는 식사시간, 체벌은 교사와 아동간의 또는 아동과 아동간의 갈등상황, 적응은 새로 들어온 아이의 분리과정)을 교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개입 없이 우선 하던 그대로를 관찰 기록한다. 이때, 기록자는 아동관찰,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관찰, 교사와 부모간의 상호작용 관찰, 교사간의 상호작용 또는 협력관계 관찰,

교사와 원장간의 상호작용 또는 협력 관계 관찰 5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교사의 시각을 넓힌다.

1 예: 11월 20일 수요일

시간: 12:10 - 12:20 기록자: 000

점심시간에 밥을 받기 위해 7명의 아이들이 벽에 기대어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성훈(5세 남아) 앞에 태혁이가 앉아 있다. 성훈이가 앞으로 가라고 팔로 밀자 태혁이가 앉은 상태에서 한 발을 들어서 성훈이의 얼굴을 세 번 찼다. 성훈이도 발로 차려고 하는데 내가 둘 다 일으켜서 냉장고 앞에 세워 놓았다.

11월 21일 목요일

시간 오전 9시 기록자: 000

태혁이 현관에 들어서자 아무도 반기지 않고 태혁이는 책 코너에서 책을 본다. 영훈이도 태혁이를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태혁이가 영훈이 보고 내가 읽어 줄게 하면서 영훈이의 책을 빼앗으려고 하자 영훈이가 싫은 표정을 하고 연이어 둘은 몸싸움이 일어난다. 태혁이가 영훈이를 몸으로 누르자 영훈이는 빠져 나와서 놀이방으로 간다. 조금 있다가 태혁이 놀이방으로 와서는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기차길을 발로 차지만 주위의 아이들은 흩어진 장난감을 주으면서 태혁이를 한 번 쳐다볼 뿐 별 다른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태혁이는 곧 아이들이 있는 미끄럼틀로 갔

다(주제 소외된 아이 중).

5) 1 차 관찰 결과: 관찰 결과 새로운 것이 발견되었거나 문제점이 드러났거나 갈등 상황이 야기되었을 경우 포착하고 다음 단계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구상한다. 이것은 교사 혼자서 보다 기능하면 동료 교사와 함께 상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 처음 이러한 작업을 해 보는 교사들은 연구일기 쓰기가 숙달될 때 까지 5)번 까지만 할 수도 있다.

1 예: 2주 동안의 관찰을 일차적으로 정리하고 몇가지 계획을 세우기로 하였다. (관찰을 하는 동안 청각장애 아동이 입소하여 다른 아동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점이고 이 때문에 교사의 신경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었다. 수두를 앓는 아동이 여러명 있어서 우리반의 과반수가 동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아동간의 관계를 정확히 관찰하기 힘들었다. 3-4명 정도의 아동 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일도 없이 어울리기 때문인것 같다.) 용남이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몇가지 사실을 발견하였다.

① 용남이는 자기가 먼저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 주로 다른 아동이 하고 있는 놀이에 끼어들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다른 아동이 쉽게 끼워 주지 않고 용남이는 속상하게 되며 그 친구를 괴롭힌다든지 하는 미운 행동을 하는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② 조금 어려운 놀이의 시도를 미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완성해야 하는 부담이 없는 놀이들 (예를 들어 블록이나 대근육 활동)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③ 용남이를 관찰하면서 교사 자신의 주관적인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선입견이 용남이와 교사와의 관계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용남이는 교사의 주의를 살피고 또 교사는 과민한 반응을 보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주 부터 몇가지 시도를 하려고 한다.

① 쉬운 단계의 게임을 몇가지 제시하여 방법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한다.

② 신체활동을 많이 하여 아동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한다.

③ 용남이가 미운짓을 하여 소외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용남이가 쉽게 놀이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자 한다(주제 소외되는 아이 중).

6) 제 2 차 관찰(약 1주일): 변화를 시도한 것에 대한 반응을 관찰한다. 1차 때 발견된 문제점과 갈등상황을 관찰하여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포착

한다.

1 예: 4월 9일 수요일

낮잠시간 기록자: 000

민지를 셋겨 방으로 들어가니 이 닥고 들어온 아이들이 뛰고 돌리베게를 서로 갖겠다고 다투고 있었다. 태혁이 베게 한개 있는데 왜 소리질 가지고 가요. 욕심부리면 안돼요. 못난이야 하며 베게를 한개 가져다 주었다. 모두 누우세요. 베게 한개씩 가지고 누워야지요. 자기도 돌리베게를 달라며 성화들이었다. 이젠 돌리베게 없어요 다른 베게 가지고 가서 누워야지요. 아무베게나 가져가. 거기 베게 많잖아. 성훈아 하며 일단 눌렀다. 어린 영아들 먼저 눕혀 놓고 소연이 옆 미희에게 미희야 소연이 좀 재워 주세요 하고 민지를 재웠다. 옆에 한얼이도 눕히고. 그러나 소연이가 싫다고 쾅쾅거린다. 큰 지은아. 너 소연이 잘 재우지? 미희랑 자리 바꿔서 소연이좀 재워줄래? 예 소연이 두팔을 벌려 지은이를 안는다. 지은이가 토닥거리 주자 이내 잠이 들었다. 미희는 한얼이좀 재워줄래? 예 한얼아 누나. 좀 재워줘 해봐 했더니 팔로 미희를 안는다. 미희도 한얼이를 토닥거렸다. 그리고 나는 계속 민지를 토닥거리며 재웠다. 교사들 끼리 약속한 대로 떠드는 아이들 끼리 붙었을 경우 때어놓기를 시도했다. 성훈이가 너무 떠들어서 내 옆으로

눅혀서 다리를 잡게 했다. 재욱이랑 환근이가 계속 장난을 쳐 옆의 아이와 자리 바꿈을 시켰는데 또 옆의 소라랑 장난을 쳐서 이번엔 미희랑 소라랑 자리를 바꿔 눅게 했더니 혼자 가만히 있다. (생략) 아이들이 낮잠은 그날 그날의 기분이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들떠있는 분위기인 날은 낮잠 재우기가 어렵고 그렇지 않고 차분한 날에는 낮잠 분위기도 그렇다. 또 영아들을 먼저 재우면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없어 이 닦고 한명씩 들어와선 베개를 가지고 자리를 찾아 눅는다. 오늘은 아이들이 쉽게 낮잠을 잔것 같다. 잠을 잘 안자는 아이는 항상 그렇지만, 다는 아이들은 조용히 누워있기도 하고 옆 아이에게 소근거리며 몇마디 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조용히 빨리 꿈나라로 갔다. 무엇보다 잠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주제 낮잠 중).

7) 교사의 견해: 제 1 차, 2 차 관찰을 통해 교사가 느낀점을 서술하고 교사가 의도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며,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점들을 토론으로 제안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다음 계획을 세워 본다.

1 예: 체벌은 교사가 그 행위를 용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어나는데 나는 식사때 밥을 먹지 않으면 끝까지

먹이려 하는 사람이라 몇명의 아이들을 혼을 내거나 엉덩이를 한 두대씩 때리거나 하는데, 이번 일을 겪으며 난감했다. 즉, 식사 메뉴가 개별 유아의 상태에 맞게 조절할 수 없이 통일적으로 주어지며, 식사시간도 정해져 있고 조리방법도 변화가 없는데, 이런 것에는 (교사의 힘으로: 필자주) 변화를 주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강제로 먹이거나 또는 유아의 판단에 맡기거나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유아의 식습관을 교정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단, 식사외 경우만이 아니더라도 그때 그때 친구를 물거나 때려 주의를 주더라도 그 행위의 빈도수가 줄기는 하더라도, 유아가 교사의 눈치를 주위를 살피며 뒤에서 하는 등 다른 행동도 같이 일어난다. 안전이나 집단 생활의 유지를 위해 또는 아이의 특정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체벌을 하나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가늠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삼 교사의 잔소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대해서는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제 체벌 중).

* 위의 연구일기 유형은 단서주제나 단성상황에 따라 그리고 교사의 욕구에 따라 각 요목 중 어느것이 특히 강조되기도 할 수 있고 또한 생략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교사 각

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의 한계를 정하고 지나치게 무리하여 연구일기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모임의 초반기에 적은 요목으로 시작하여 차츰 여러 요목으로 넓혀 가며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형식을 위해 연구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교육(연구)하기 위해 연구일기를 쓴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을 권한다.

(3)연구일기의 발표

연구일기를 발표할 때에는 가능한 기

3. 자료조사

연구일기의 발표와 함께 단서주제나 단성상황에 적당한 자료를 참고한다. 자료조사는 회원 중 한명이 돌아가며 할 수도 있고 도우미가 준비해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내용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외에 교사들에게 자극이 될 만한 내용 또는 자신들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어야 한

4. 토론

연구일기와 자료의 발표가 끝나면 일단 질문을 하여 발표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원들은 미리 토론할 내용을 생각해 오거나 연구일기를 쓰면서 꼭 깊이 있게 다루어 보고 싶은

특한 것을 모두 발표하는 것이 어리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며(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양이 그리 많지 않았음). 매일 매일 기록해 양이 많을 경우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볼 수도 있다. 연구일기를 발표할 때에는 참석회원 모두가 읽어 볼 수 있도록 복사를 해 서로 나누어 준다. 발표는 참석한 교사 인원이 10명 정도일 때 5사람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많은 사람이 발표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너무 적은 사람이 발표를 하게 되면 적은 양의 경험을 나누게 되어 정보가 부족해질 수 있다.

20여명 넘어가면 힘들다.

다. 이러한 자료는 연구일기의 내용과 함께 토론으로 연결시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예: 전문 서적, 수필, 신문의 기사, 다른 교사들의 작업사례, 개념에 대한 기초지식을 위한 논문, 사전 또는 글의 일부분 등 그 범위는 무한하다.

점들을 모아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또는 사회자가 주요 안전을 파악하여 토론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 토론할 때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부터 현실적인 대안까지 모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안들을 우선적으로 토론하고, 불만족스러운 때엔 같은 주제를 2차, 3차로 연장시켜 다시

5. 정리작업

연구일기, 자료조사, 토론 내용을 한 곳에 정리를 한다. 이 작업은 교사들의 현장 경험이 이론으로 체계화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흔히 교사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이론은 무관하다(자신을 낮게 평가)고 생각하고 있거나 이론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추상적인 이론: 구체적인 현실)가

하되 세분화, 구체화에 역점을 두거나 위의 연구일기 형식 5)번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해 보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이 정리된 것은 다른 연구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자극을 주는 살아있는 모델이 되어 새로운 실제와 이론 또는 이론과 실재를 형성, 발달시키는 근원이 될 수 있게 한다. 이 작업은 도우미가 하거나 회원 중 한명씩 돌아가며 할 수도 있다.

III. 연구의 효과

본 연구작업은 교사나 도우미(사회자, 매개자)나 모두가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며 연구자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의 효과란 작업의 특성상 특정한 연구자(도우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입장에서 본 효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효과에 대한 해석 또는 분석은 교사들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특정한 연구자(여기에서는 나)에 의한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다음에 몇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들어 보겠다.

1. 교사들에게 자기인식과 자기교육의 기회가 되었다.

2. 아동을 대하는 시각이 달라졌다.

3. 직업에 대한 의식이 강화 되었다.

4.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공동의 고민이 되어 문제 해결의 폭이 넓어졌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문제를 가졌다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팀의 구성원으로 부터의 지지와 위안을 받으며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알지 못하면 문제로 부터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관찰과 외부의 정보가 항상 교차되도록 해야한다)

5. 교사와 아동 관계의 전이 달라졌다.

6. 연구일기로 인해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고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다.

7. 좋은 교사들을 사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와 동시에 문제점도 있었다.

첫째는 모임을 위한 장소와 시간문제였다. 하루종일 일하고 퇴근 후 모여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과 함께 이 곳 저 곳에서 부터 수월하게 참석할 수 있는 교통여건을 고려한 충분한 공간 특히 늦은 시간 까지 머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는 문제는 교사들의 사기와 참여도가 저하될 수 있다.

둘째로 서로 사귀기, 간식 및 저녁식사, 발표, 토론 등을 매 번 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좁히고 사회자가 토론의 줄기를 재빨리 잡아 줌으로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는 오히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끝없는 욕구에 의한 것이므로 바람직한 문제라고 본다.

셋째 연구일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다. 처음에 특정한 유형 없이 교사들이 스스로 연구일기의 유형을 발달시키도록 시작한 나의 의도에 의한 어려움이었으나 모임의 회를 거듭할 수록 어느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일기의 형식은 일기라는 말이 내

포하듯 상당히 자율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제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교사들의 주제에 대한 탐색 욕구에 따라 그 형식은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으며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내용면에서 또한 교사들은 상당히 불확실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그것은 객관적인 일과 주관적인 견해를 접목시키는데 대한 두려움과 자유에 대한 구속감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넷째, 교사들의 자기과소평가(Minderwertigkeit)이다.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원장, 부모, 다른 교사들에게 자신감을 적게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신있게 표현하기를 꺼려했으며 대부분 객관적인 사건이나 상황으로 자신의 의견으로 대신하고자 했다. 그 이유를 나는 연구모임이 교사 개인적인 일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인 저평가,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제도적 열악성,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거의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근본적인 열등감도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솔직하게 자신을 밝히는 교사들도 있었다. 그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평가되기를 거부하는 또는 그러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 하는 교사도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모임의

초기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다 후에 회원들 간에 좀 더 이무러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보다 주관적이고 교사의 교육철학에 가까운 주제를 다루어 보는 것도 필요 없는 경계심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모임의 역동성에 대한 것인데 보육교사들의 인적 배경이 무척 다양하고 문제의식에 대한 동기와 정도 그리고 해결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토론의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어떤 교사는 평소에 고민을 많이 또는 적게 했었고 어떤 교사는 모임에 대한 기대가 무척 높을 또는 낮을 수 있다는 정도의 상대적 만족도이다. 이 모든 기대를 끌고루 채우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항상 자기의 욕구표현을 충분히 그리고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일기를 쓰는 동안 질문을 명확히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문제의 해결은 문제상황 또는 갈등상황을 명확히 서술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는 극히 당연한 논리를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교사들의 정보에 대한 욕구이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타인의 경험과 지식이 깊은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워지는 이가 만들어 놓은 정보를 자신의 경험 보다 가치 있다고 여긴다. 나 개인적으로는 모임에서 다루어진 교사들의 구체적인 경험이 이론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많았으나 교사들 스스로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깨

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모임의 정리작업이었다. 교사들은 모임을 기록한 프로토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토론한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표현했다. 정리작업을 보면 대부분 교사들은 우리가 그런 것을 생산했었던가 하고 놀라워 한다. 교사들이 노력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이 얼마나 값진 자료가 되는지를 새로운 정보만을 선호하는 교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히고 싶다. 물론 재교육에 대한 인식이 타인에 의한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고정된 관념이 크게 작용했으리라는 것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자율성에 대한 한계성이다. 연구작업을 통해 교사들과 나는 항상 변화의 한계성을 느꼈다. 그것은 교사 한 개인으로 해낼 수 없고 원장의 협조와 부모의 협조 나아가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모임의 힘으로 불가항력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재통잔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나름대로의 제한선을 짓는 것이다. 주어진 자율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대안)을 우선 모아 실천하는 것을 일차적인 것으로 하고 이러한 모임이 점차 늘어가면서 교사 공동의 의견으로 수렴하여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차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회라는 조직이 전체 영유아 보육제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미리 미리 작업해 두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IV. 제언

교사들과 연구작업을 하면서 교사회에 하고 싶은 나의 제언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보육교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마음을 열고 좋은 것은 나누고 지양되어야 할 것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둘째: 위와 같은 작업은 급하게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동료 교사들을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여 지속적인 작업을 해야만 연구의 발달을 맞출 수 있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나는 조직적인 문제와 시간 및 장소의 문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교사들의 자기 의식을 높이는 특별한 준비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동안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 연구작업이 교사들과 내가 처음부터 그래 왔듯이 서로 전문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여러 교사들의 제언을 싣고 싶다. 각자 적어보고 제언을 해 주었으면 한다. [KDTA]

감사합니다

1997년 7월 26일

<<MEMO>>

홍지서에게만은 원에 가왔다 — 그룹 작업
내용은 풍요하게 담아서

부모협력작업

한혜정, 지정희, 김효정(아기자람터 교사)

1. 필요성

보육시설에서 아동의 행동 및 생활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나 시설운영 차원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교사의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때가 많으며 그 해결책이 교사의 단독 의견인 경우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때 부모와의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협력작업의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는 발생한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며, 보육시설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아동교육에 일관성을 가져오게 된다.

2. 유형별 사례

① 아이를 중심에 놓고 부모와 교사가 해석하는 각도가 전혀 다른 경우

지형진(4세, 남): 엄마와 아동이 신경이 예민하고, 마흔 넘어 본 외아들이라 가정에서 과보호를 함.

형진이는 자람터에 온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낮잠을 깊이 못자고 가끔씩은 갑작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었다. 그 일로 교사가 형진이 엄마와 이야기를 하였는데, 집에서 잠을 자다가 "때리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잠꼬대를 하기도 하고 자람터 친구들이 괴롭힌다고 투정을 부린다고 하였다. 형진이 엄마는 아이가 자람터에서 많이 맞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교사들은 형진이가 자람터에서 지내면서 한 두 번의 다툼은 있었지만, 맞고 괴롭힘을 당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얼마동안 관찰을 하였는데, 형진이가

다른 아이들 보다 예민한 편이라 작은 다툼에도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충격을 받는 것 같았다. 형진이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며, 집에서 관찰을 해 보도록 당부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형진이 세 번 정도 가벼운 찰과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고, 엄마는 불안해 하면서 너도 친구들한테 맞지만 말고 때리라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다. 또한 귀가 시간에 아이가 더 놀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놀이방에 들어와서 30분 정도 지켜 보다가 다른 아이들과 다툼이 있으면 다른 아동을 야단을 치는 일이 여러번 발생했다. 그래서 다시 상담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엄마가 혹시 자람터에 형진을 보내는 것이 불안한지, 교사들이 형진이를 돌보는데 소홀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솔직하고 물었고 엄마는 본인의 성격상의 문제이고, 교사에 대한 불신은 아니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엄마의 행동을 통해 교사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형진이 문제를 다시 의논했다.

먼저 형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 예민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낮잠 시간에 깊이 못자면 교사가 꼭 껴안아 주고 토닥져서 재우기로 했다.

귀가 시간에도 엄마가 오랫동안 놀이

② 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일치하며 좋은 결말이 난 경우

정민(19개월, 여)이 엄마는 올해 11월에 대학원에 진학 하기 위해 3월부터 자람터에 정민이를 맡겼다.

첫달은 적응기간이라 반일반을 했는데 엄마와 떨어지면서 한달 반 정도 울고 보냈다. 겨우 격리 불안이 해소 될 즈음, 감기를 앓기 시작하더니 폐렴으로 진전이 됐고, 집에서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 괜찮아졌다가 자람터에 오면 악화되는 일이 세 번 정도 되풀이되면서 엄마가 무척 힘들어 했다.

상담을 통해, 엄마가 공부를 포기하고 정민이만을 키워야 되는지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진다는 것과 정민이가 자람터 생활을 하는데 체력이 떨어져서 병치레를 계속하는 것 같아서, 영아전담시설의 반일반으로 옮겼으면 하는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들은 엄마가 공부도 계속하면서 정민이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

방에 있으면, 엄마를 믿고 다른 아동들과 다툼이 심해지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형진이를 괴롭히고 때리는지, 왜 다툼이 일어났는지 형진이에게 정확하게 물어보기로 했다.

지금은 형진이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투정을 부리는 일도 줄었고, 낮잠 시간에도 거의 울지 않으며, 귀가 시간에 다투는 일도 없어졌다.

고, 영아전담시설의 교사와 상담을 해서 정민이 옮기는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정민이가 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자람터에서 계속 생활하되 정민이가 하루 중 덜 피곤해 하는 시간과 엄마가 공부하기 좋은 시간을 맞춰 자람터에서 지내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자람터는 원칙적으로 반일반이 없는데 정민이가 건강해질 때까지 한 두달 정도만 반일반을 하기로 했다. 지금 정민이는 한약도 먹고 오전과 오후 두차례 정도 낮잠도 자면서 감기를 이겨내고 있는 중이다.

③부모가 교사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최재욱(3세, 남)

엄마, 아빠는 상가에서 신발가게를 하고 있는데,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어 늦게 본 아들이다. 재욱이를 몇달 보내고 있던 곳이 문을 닫아 다른 곳에 한 두달 맡겼다가 그곳이 엄마 마음에 들지 않아 옆에 살던 자람터 자모의 소개로 자람터로 왔다. 상담 때 아이의 잦은 환경변화가 마음에 걸려 환경이 자주 바뀌면 아이가 불안해 하고 힘이 들어 한 곳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잦은 이동 탓인지 적응기간 동안 엄마와 분리가 무척 힘들었다. 처음 본 교사만 졸졸 따라다니며 그 교사가 보이지 않으면 소리치며 심하게 울었다.

일주일이 넘게 그 상태가 계속되었으나 놀이나 아이들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며 나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미덥지 않은지 나아지질 않는다고 걱정했다.

교사들은 환경변화가 심해서 적응이 좀 힘든 것 같으며 엄마가 먼저 믿고 같이 노력해 보자고 했다. 한달이 거의 되어가자 적응이 조금씩 되어갔으나 재욱이가 감기가 심해져서 아빠가 놀이방엘 가지 못하게 한다고 며칠 보내지 않았다. 적응이 되어가고 있으니 시간을 단축하고 매일오면 좋겠다고 했으나 보내지를 않았다. 전화를 해도 아파서 갈 수가 없다고 했다. 몇번의 전화 뒤에 엄마

가 재욱이를 데리고 왔고 첫날과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었다. 엄마에게 감기가 많이 나왔으니 매일 오실 것을 당부했고 엄마도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했다.

그 뒤 재욱이 엄마는 아이를 업고 자람터까지 오기가 힘들다며 하소연을 했고, 아이 아빠를 도우러 가게까지 내려가기도 너무 힘이 든다고 했다. 몇 주를 나오더니 또 재욱이가 아프다고 보내지를 않아 여러차례 전화를 해 보았으나 아파서 좀 쉬어야겠다고만 했다.

며칠 뒤 어느 날 집 앞에서 해봄어린이집 차량을 보았다며 똑같은 곳이라고 하니 그곳으로 보내고자 한다고 전화가 와서 잦은 환경변화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얘기를 했으나 엄마 마음은 벌써 달렸고, 이미 해봄어린이집에 입소 상담을 마친 상태였다.

그 뒤 재욱이가 해봄에 조금 다니다가 또 그만 두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엄마를 여전히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④부모와 교사가 우어꼭질 끝에 합의점에 다다른 경우

민지(3세 여)에는 아빠가 사업을 하시고, 엄마는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교원발령을 받아 출근할 날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전포동의 여러 어린이집을 둘러보고 나서 자람터로 결정을 하고 왔다. 민지 엄마는 아이를 허용적인 태도로 세심하게 돌보는 듯 했으며 특히 감기가 들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었다. 날씨가 조금만 쌀쌀해지자 입은 옷 위에 덧입혀 줄 것을 당부하였다. 민지가 걸기 힘들어 보일 정도로 옷을 입히기도 해서 엄마에게 보일러도 틀고 하니 옷을 덧입히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엄마는 자람터에 창문이 많아서 그렇단다. 그래서 상의 끝에 창문은 환기 후 닫고 날씨가 추울때만 옷을 덧입히기로 했다. 한달쯤 뒤 민지는 감기가 심해져서 병원에 다니며 거의 매일 약을 먹었다. 민지엄마는 민간 요법도 같이 썼는데 그것도 안되어 한의원에서 한약까지 지어다 먹었다. 어릴때 부터 약을 많이 먹으면 면역기능이 떨어진다고 걱정했더니 엄마도 알고 있지만 감기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했다. 나중엔 면역기능 강화를 위한 약까지 먹었다. 어느날 민지엄마에게 연락이 왔는데 민지가 잘 때 바람을 쏘이지 않도록 바람막이를 해주려고 한다면 스치로폴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엄마의 연락을 받고 소아과에 문의하니 잠을 자는 아이에게 바람막이는 오히려 온도를 상승시켜 좋지 않다고 했다. 보일러 온도를 실내온도와 비슷하게

맞추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사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스치로폴을 가져온 엄마에게 상의를 했다. 그랬더니 민지를 몰라서 그런다며 한의원에서 특진을 했는데 찬 바람을 쏘면 절대 안된다고 했단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임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람터는 창문이 항상 열려있고 현관문도 열려있어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아침에 잠든 채 오는 민지를 방 한쪽에 눕혀놓고 재우면 바람이 그대로 민지에게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문을 열어 놓을 때 보아서 그렇지, 환기 후 꼭꼭 닫고 있다고 했다. 환기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고, 또 민지만을 위한 바람막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민지만 특별한 대우를 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말로 민지엄마를 설득했다. 상의 끝에 교사들이 최대한 문을 신경써서 닫기로 하고 스치로폴 설치를 보류했다.

그 뒤 민지가 오면 창문이란 현관문을 교사들이 신경써서 닫았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알아서 옷을 입혔다. 그 뒤로는 민지도 아침에 잠이 든 채로 오는 일이 없었다. 방의 환기에 대해서 엄마가 이해를 하고 필요를 느끼는 것 같았고, 그 이후 창문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몇달 동안 민지는 살도 찌고 튼튼해졌다. 그러다가 민지 이모가 부산으로 내려와서 같이 있게 되면서 민지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게 되었다.

3. 결론

여러 유형들의 부모협력작업을 시도한 결과 부모, 교사, 아동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긍정적인 효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문제 인식을 교사·부모가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 차례의 대화,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었다.

둘째 걸음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데서 오는 섭섭함, 오해 등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차츰 풀리게 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부모·교사들이 서로의 입장을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고, 신뢰감이 조성되어 더욱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넷째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짐으로써 가정에서 아이의 생활, 문제행동, 성격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

<<토론거리>>

- ① 부모협력시 교사가 준비해야 하는 것과 교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 ② 부모가 교사의 제안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제시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 ③ 부모협력시 교사 상호간의 협력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이와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먼저, 교사와 부모 사이에 어느정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게 되면 교사의 권위가 손상되기도 하고 교사의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둘째 대화 방식을 잘못 선택할 경우 도리어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셋째 교사가 교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모에게 수용되고 전달되어야 하는데 지속적인 관계와 노력속에서도 부모가 변화되지 않을 때 교사는 좌절하게 된다. KDTA

<<유의점>>

부모협력작업이 실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는데 먼저, 그 동안 가지왔던 부모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집안 환경, 부모성격, 아동성격 등에 대해 교사가 가능한 한 충분히 파악하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작업과정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경직된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부모의 성격, 특성에 맞는 대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상호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협력작업의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지속적이며 꾸준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

일본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부모협력작업

박찬주(아기자람터 교사)

1. 부모협력 작업의 필요성

일본에서도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가정과 보육시설에서의 생활이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이 때 교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로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한다.

2. 부모협력 작업의 형태

1) 일지

시설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교사는 아이의 개인별 일지를 매일 작성한다.

이때 2세(24개월)까지는 수면시간, 식사, 간식상태, 건강여부, 보육소 생활 등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부모는 하원시 그 내용을 읽고 교사와 간단하게 이야기 한다. 부모도 가정에서 아이의 상태나 바라는 내용들을 일지에 기록해서 등원시 가지고 오지만 의무적이지는 않다.

3세부터는 전체 아이들의 생활 전반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한 장짜리 일지가 있다. 그 일지에는 하루 보육소 일과와 부모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기록된다. 부모는 등원시 아이의 상태를 간단하게 적고 하원시 그 기록을 꼭 본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아이와 보육시간 내에 아이를 데리러 오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부모의 아이에 한해, 개인별 일지가 있다. 교사는 거기에 아이의 특별한 상태나 알리는 내용을 기록하여 부모에게 전하며,

부모는 그 내용을 읽고 기록하여 교사에게 전달한다.

2) 가정방문

4월~5월에는 가정과 보육시설에서의 생활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새로 들어 온 아이를 중심으로 낮잠시간에 교사 한명이 집에 다녀온다. 가게나 부업을 하는 부모나 보육시설 가까운 데에서 일하는 부모를 만날 경우, 휴식시간을 이용하며 부모가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면 그 시간에 맞춘다. 또 다른 보육시설은 가을에 한번 더 실시하는데 그 때는 보육시설 아이들의 가정을 실시하며 방문하며 주로 저녁시간을 이용한다.

3) 바자회

바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가 더욱 더 가까워져서 친밀감을 갖게 되고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

4) 부모간담회

1년에 두 번(초기, 후기) 정기적으로 부모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부모들은 퇴근 뒤 저녁시간에 보육시설에 와서 1~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다.

이때 주 내용은 아이들의 생활 전반에 관한 것, 행사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부모들은 평소 인쇄물이나 일지를 통해서 충분히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횟수가 적당하다고 대부분 생각한다.

부모들과 교사들이 서로 얼굴을 익히고, 부모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털어 놓고 이야기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교사, 부모 모두 간담회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

그 외에 다매와리 (3, 4, 5세 장애아 공동 혼합보육)는 한반에 4~5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그룹 면담이 시설에 따라 한달에 한번, 또는 일년에 두번 정도 있다.

5) 장애아 부모의 면담

다매와리를 실시하는 곳은 2개월 마다, 또 한 시설은 한 주에 한 번씩 매주 토요일 오전에 교사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장애아 부모회 면담을 추진중인 곳도 있다. 하지만 가벼운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 가운데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 모임에 참석하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부모 면담시 내용은 가정과 보육시설에서의 생활을 많이 이야기 하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가능한 일을 선택하고 만들어내는 힘을 지닌 아이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부모와

대화를 한다.

6) 강연회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 마음이나 신체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전체 부모를 위한 강연회를 가지는 시설도 있다. 보통 1년에 한번 실시하는데 부모들에게 사전에 듣고 싶은 내용을 조사하여 주제를 정하고 병원 관계자나 대학교수에게 강연을 의뢰한다.

일지(연락장)와 인쇄물, 교실앞에 부착되어 있는 알림판을 부모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보기 때문에 교사가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며 교사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도래와 물을 가지고 매일 바깥놀이를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옷도 자주 갈아입고 행사별로 준비물도 많은데,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정리도 하고 세심한 데까지 보육시설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

일본 보육시설에는 매년 4월초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아이보다는 계속 다니던 아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모가 보육시설에 가지는 이해도가 높다.

3. 부모협력작업 유형별 사례(성애원을 중심으로)

1) 부모, 교사, 아이의 의견이 합의된 경우

띠까(6세 여아)는 안면장애가 있는 아이다. 적극적이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을 지녔다. 점심, 간식 먹을 때 의욕이 구를 이용해서 교사가 치료한 후 건더기가 없는 국물이나 과자 1~2개, 우유 등을 조금 먹고 점심시간에는 두유를 코로 연결시켜 섭취한다. 얼굴 한 쪽에 상처가 있어 붕대를 감고 있고, 목에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어 그곳을 붕대로 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이 들어가 젖으면 안되는 상태이다. 보육시설 행사중 취학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원외 2박 보육을 가는데, 띠까부모는 아이의 상처가 물에 젖으면 안되고 자기 전에는 치료도 해야 되므로 불안해 했다. 아이도 힘들 것 같으며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 교사들도 안면장애를 가진 아이가 2박보육을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띠까는 2박보육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1단계>

교사들은 2박보육의 중요성을 부모에게 설명하고 부모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계속 면담을 한다. 면담하는 과정에서 보육시설에서와 하는 치료와 다르게 가정에서 하는 치료가 있다는 것과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2단계>

교사들이 가정에서 하고 있는 치료방법과 아이의 상태를 부모에게 교육 받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2박보육 장소를, 병원도 가까이 있고 나무도 많고 자연이 좋은 곳으로 여러군데 사전답사 했다. 그 가운데 한 곳을 교사들이 정했다.

<3단계>

거의 한 달 가까이 부모와 교사가 면담을 하는 가운데 부모도 아이의 생각과 교사의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되어 지금은 계속 책임교사와 보육시설에서 상근하는 간호사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아이도 2박보육을 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여 열심히 하고 있다.

2. 교사와 부모와의 협력작업이 진행중인 사례

고무미치(4세 남아)는 지적장애아로, 들을 수는 있지만 말을 못한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운동장을 자주 뛰어다니며 손에는 꼭 인형을 한 두개 쥐고 있다. 밥은 흰밥을 2~3숟가락 먹고, 섞은 음식은 먹지 않으려고 한다. 스스로 밥을 먹지 않으며 교사가 먹여주면 억지로 먹지만 양은 2~3숟가락 정도다. 요즘은 양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지만 먹는 걸 힘들어 한다. 고무미치는 작년 9월에 성애원에 왔는데 주스, 우유, 과자, 빵 등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방에 항상 넣어가지고 와서 점심, 간식 대신 먹었다고 한다.

<1단계>

새 학기가 되어서 4세가 된 지금은 교사가 부모한테 성애원 점심, 간식값도 따로 납부하고 있는데 또 매일 점심, 간식을 준비해 오면 부모에게 부담도 가고 아이에게도 여러가지 안 좋은 영향이 가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설득을 했다. 부모는 교사의 말에 동의를 하고 보육시설에서 점심, 간식을 먹기로 하고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7개월이 걸렸다.

<2단계>

하지만 이내 또 다른 단계가 나타났다. 아침에 등원시 항상 아이의 손에는 먹을 것이 쥐어져 있었다. 먹을 것을 들고 먹으면서 오고 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올 때 마실 것을 꼭 가지고 왔었다. 그래서 고무미치는 항상 엄마가 오면 나가서 가방부터 열어서 음료수를 찾는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교사들은 부모와 면담시, 오고 가면서 이런 것을 먹게 되면 습관화되어서 점심, 간식을 먹지 않고 계속 음료수, 과자만 찾게 되어서 다른 아이들처럼 점심, 간식을 먹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 했다. 엄마는 아이가 이상한 소리로 우는 것이 듣기 싫어서 그런다고 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조금씩 줄어드는 상태이다.

일본 보육시설은 교사와 부모의 상호작

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의 하루일과가 원활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교사와 부모가 서로의 역할을 알고 실천을 한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의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도 교사 스트레스가 적을 것 같다. 하지만 요즘 일본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가 천재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지능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글자, 수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직접 이야기 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이때 교사들은 능력중심, 가치중심 교육보다는 놀이중심, 아이중심보육이 좋다고 부모와 이야기 하지만, 부모가 동의 하지 못할 때 교사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전문성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단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다고 한다.

내년부터는 일본 보육제도가 바뀌어, 부모가 아이를 원하는 시설에 보낼 수 있게 된다.

부모들은 능력중심교육, 영재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아이의 입장에서 좋은 보육을 하고자 하는 교사들과 운영자들은 심각함을 느끼고 있다. 나름대로 교육관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고 좋은 보육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부모와의 협력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KOTA

<<MEMO>>

초기적응

오운정(통통어린이집)

어느 교사나 자기 이론이 있다. 적응과정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사도 아이를 어떻게든 적응시키려 노력한다. 이때, 교사는 자기 나름의 이론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 서울교사 연구모임은 책을 보고 자신의 이론이 올바른가를 확인하기 보다는 모인 교사, 각자의 이론과 실천을 나누고 평가하여 가장 올바른 이론과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 적응과정을 논의한 것은 1996년 11월 이었다. 당시 한 교사가 자기반에서 적응하지 못한 아이를

연구 주제로 잡아 관찰일기를 쓰고 모임에서 토론하였다. 그 이후 1997년 3월말 2차례에 걸쳐 적응과정을 세밀하게 다뤘다. 이 과정은 적응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과정을 각 교사가 나누어 정리하고, 적응프로그램을 시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적응 프로그램을 정리하였다. 참여한 교사들은 적응 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바로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을 정리한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1. 각 모임마다의 연구보고

1) 1996년 11월 1차 모임

①제출된 자료: 관찰일기(강산이는 왜 한 교사에게 매달리는가? 강산이가 그 또래 아이들처럼 어린이집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②연구일기 내용과 토론 요점 - 어린이집에 온지 2주가 되어 설사와 고열을 반복하던 아이가 한 교사에게 매달리기만 하고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고 놀지도 않아, 규칙적으로 그 아이의 행동을 기록하기로 했다. 관찰일기를 쓰면서 아이를 적응시키기 위해 교사가 의도적 행동(가끔은 사라지기, 이동시 앉고 다니지 않기, 손가락을 빨때 안아주기)을 했으며, 한 반에 두 교사가 있을때 교사 협력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일기를 쓴 교사가 풀지 못한 문제(예. 왜 특정인에게 매달리는

는가?)를 함께 토론했게 되었다.

③첫 모임은 적응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몇가지 문제를 알게 되었다.

2) 1997년 3월 2차 모임

①제출된 자료: 각 교사의 적응사례와 적응과정에서 교사가 어떻게 느끼는 것.

②모임 내용: 그동안의 적응사례를 되돌아보면서 적응에 필요한 몇가지 단서가 정리되었다. 적응전 부모와 상담시 중요한 것(예. 단 30분이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필요성), 교사의 역할, 반이 바뀔 때 겪게 되는 적응문제, 특정교사와의 애착형성 등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했다. 독일의 적응표준단계도 살펴보았다. 독일의 적응과정은 상식화 되어있다. 어린이집이 혼합연령

이며, 입소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담임이 바뀌지 않고 계속 맡는 등, 우리 사회와 보육풍토가 다르다. 논의 끝에 리에 가서 적응의 목표를 잡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아이, 부모, 교사가 어린이집 생활 속에서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었다. 분리과정, 부모협력관계, 교사간 협력관계, 시설에서의 준비작업 등으로 나누어 각각 준비하기로 했다.

2. 적응 프로그램

목표: 적응은 어린이집 생활 속에서 아이, 교사, 부모가 안정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1. 적응실시전 과정

1) 부모 상담

-부모상담시 필요한 자료

○어린이집에 대한 소개(어린이집 설립목적, 운영소개, 1년 운영 및 교육계획, 교육활동 내용, 생활 수칙, 자모회 등을 소개한다.)

○아동을 이해할 수 있는 서류-입소신청서, 어린이 소개서(성격, 건강, 습관, 양육과정, 수면 습관, 배변 정도, 놀이 형태, 가정환경, 어린이집에 바라는 사항 등)

○어린이집에 올 때 준비물 등을 이야기해 준다.

3) 1997년 3월 3차 모임

※제출된 자료: 부모와의 협력작업, 시설

에서의 사전 준비, 교사간 협력작업, 독일 적응프로그램의 적용 사례

※모임 내용: 각각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논의했다. 독일프로그램 적용 시 우리 나라 어린이집의 조건과 독일의 조건이 다른 것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좀더 좀 좋하게 나눠 생각하고 토론하니, 나름에 결과물이 생겼으며, 참가한 교사들이 적응 문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부모상담 과정

○간단한 서류로 아이를 알 수는 없다. 원장이 입소서류를 받더라도 담임교사는 부모와 꼭 상담을 해야 한다. 30분 정도라도 허심탄회하게 부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부모가 아이를 데려오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아이를 관찰한다.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하는지, 교실을 돌아다니며 궁금해하는지 등)

○적응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야기한다.

아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왔을 때 울거나 어린이집 근처만 외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심하게는 바닥에 누워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익숙해진 집과 엄마가 떨어져서 느끼는 불안이다. 또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힘들어 아프기도 한다. 이는 심리적인 충격이 신체적 지행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격리불안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부모와 교사가 이 불안을 먼저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잘 적응하지 못하면 아이가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데 엄마를 먼저 못한다거나, 정서불안, 만단지체, 집중력이 저하 되는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부모와 적응 프로그램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묻고 합의한다. (예, 3일 정도 어린이집에 와서 같이 지내다가 점차 시간을 늘리는 등 며칠간의 시간을 둔 뒤 아이를 어린이집에 혼자 보낸다)

○적응할 때 부모가 유의할 사항을 이야기해 준다.

부모 스스로 어린이집을 받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보아라. 또 특정한 교사만 따르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당연한 현상이며, 그렇다고 그 선생님을 외에 다른 선생님을 불신해서는 안된다. 등원 시 부모가 떠날 때 꼭 손을 하고 떠나야 한다. 돌아와서도 왔음을 확인해 2주이한다. 어린이집의 일과를 물어보고 엄마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지내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해준다.

○가능하다면 가정방문을 하는 것이 좋다.

2) 교사의 준비

- 담임이 한명인 경우- 새로 들어오는 아이의 정보를 최대한 수집한다.

- 2명 이상의 교사가 한 유아를 함께 적응시킬 경우

아이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교사 개인의 개성과 유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풍부한 토의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적응기간 내내 매일 유아상태를 함께 파악하고 다음날의 적응 과제와 교사태도에 대해 의견조정이 있어야 한다. 적응이 이루어지면 평가에 대해서도 함께 한다.

- 동일시설 내에서 반이 바뀌는 경우

같은 시설에 계속해서 다니다가 반만 바뀐 유아의 경우 그 전 담임교사와 새로운 담임이 유아의 특성과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흔히 같은 시설에서 2,3년씩 지낸 유아에 대해서는 신입원아에 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유아에 따라서는 특별한 애착관계를 맺고 있는 교사가 같은 건물안에 있으면서도 더 이상 자신을 보살피거나 관심을 주지 않게 되면, 섭섭함과 배신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전 담임과 어떤 특별한 애착관계가 있었는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적응의 본단계 - 분리과정과 적응

1) 부모와 합의된 적응과정을 갖는다.

- 영아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적응 준비기를 갖고 분리과정을 갖는다.

예) E 어린이집의 노** (13개월 여아)

처음 **이는 어린이집을 4월부터 보낼 예정

정이너머 언마는 일주일에 한 두번 이선이 집에 틀러 아이와 놀다가 갔다. 언마는 이이가 어려서 잘 적응을 못할 꺼라 걱정했다. 다른 아이가 적응하는 것(이 이선이집은 97년 3월에 개원했다)을 보면서 불안해진 언마는 상담을 요청했다. 언마에게 분리 불안은 당연한 것이니 이야기 해 주었다. 이이 언마는 이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 이후도 언마는 가끔 놀다가 갔다. 그러다가 3월 15일 이후 독일 적응 프로그램을 보며 드리고 적응 러칭을 갖기로 합의했다. 머침은 11시에 탁시 3~4시까지 있다 갔다. (아이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오는 것이 좋았다) 처음 천정은 언마 무릎에 앉아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언마에게서 떨어져 놀이감을 만지기도 했으나, 언마가 먹어 있으면 울면서 언마가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언마는 아이에게 너는 적응을 잘 해야 돼, 그래야 너도 좋고 언마도 좋고 다른 아이들도 좋지 하고 말한다. 이렇게 3일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사는 그동안 독일 적응 프로그램을 시도했고, 아이의 신호에 언마가 어떻게 반응하는 지도 살폈다. 그리고 3일 뒤 처음 20분 정도 교사가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는 방식으로 분리를 시도했다. 잠시 후 아이는 울었고, 다시 언마에게 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반복했다. 그동안 달인교사는 이이 곁에 주로 있었으며, 영국을 정면으로 들여대지 않고 옆으로 보고 아이가 무엇을 하는 지 지켜보고 가끔 아는 체 하고 친해지려 했다. 3일 뒤 이이에게 인사하고 언마는 사라졌고, 언마가 사라진 뒤 인형을 주고 교사가 안아주니 울지 않았다. 1주는 언마와 떨어져 있을 때 울었으나, 지속적이지는 않았다. 주변환경을 살펴봐 놓았다. 달인 교사를 떨어지지 않는다. 3

주 후 이이는 모든 교사를 잘 따르고 편안해 하는 것 같았다. 4주 후 여전히 언마와 떨어져 있을 때 울지만 여기저기 주변을 교사의 손을 잡고 가자고 이끌었다.

2) 분리-적응 과정 시 도움이 되는 제안

-아이가 필요할 때 어떤 신호를 보내며 언마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적응준비기에 파악해야 한다. 예)아이가 졸릴 때 우유를 찾는다.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눕히면 운다. - 집에서 서서 기저귀를 갈아주었다고 한다.

-적응 과정에서 영아는 안아주거나, 업어주는 등 신체적 접촉이 빈번하며, 가끔 환경을 바꾸기 위해 바깥에 데리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독일에는 없는 사례로 한국적 특성인 것 같다.

-기분 좋은 시간에 적응시간을 맞추는 것이 좋다. 특히 일과 시간 중 낮잠 시간을 가장 힘들어하는데 처음에 가능하면 낮잠시간 전에 데려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일과를 융통성있게 적용해야 한다. 아이는 낮선 공간과 사람 속에서 어렵게 적응하는 과정임을 교사는 이해해야 한다. 낮잠의 강요등을 아이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다. 규칙과 일과는 서서히 아이의 생활리듬이 만들어질 때 요구하는 것이 좋다.

-교사는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말로 설명해 주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여기는 어린이집이지, 누가 있니, 아이들이 있지. 어른 있어? 그래 선생님 말고는 아이들만 있지. 여기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일하는 동안 지내는 곳이야. 엄마가 일 끝나면 데리러 올거야."

-집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는 애착물과 좋아하는 장난감을 구분하여, 애착물인 경우 인정해야 한다. 엄마가 없음으로써 대용품(담요, 특정한 인형 같은 것)을 찾는 아이가 있는데 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므로 찾지 않을 때까지 허용해야 한다. 좋아하는 장난감(로봇, 차)의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경험을 할 기회를 뱃을 수 있으므로 적응이 되면 집에서 가지고 오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부모 교사와의 의사 교환이 중요하다. 편지나 개별 상담, 전화도 효과가 크다. 특히 영아의 경우는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적어 보내는 것이 부모를 안심시키고 신뢰할 수 있게 한다.

예) 97년 3월 26일 어린이집에서
동해날입니다. 어제 보다는 좀 울었지만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언마가 가져와주니 인형을 주니까 그랬어요. 노래를 들려주니 한참 동안 그쳤고 뽕 빵을 주니 또 좀 그치고 복판도 잠해보고, 그러다 이이 울기 시작하고 나들이 갔어요. 가는 중에 스스로 잠이 들었어요. 샷방 공원 놀이터 등나무 아래서 유모차에 누운 채 우유병을 쥐고 잠들었어요. 40분 쯤 지나 가서 신발신겨 내려 놓으니 신발 신고 뒹뒹뒹 거러다닙니다. 표정이 밝네요. 잔디에 앉아 잔디를 뜯어도 보고... 돌아와 전심먹고 음악을 들려주니 책상을 잡고 엉덩이를 흔들며 소리치고 놀아요. 미끄럼틀 앞에서 랑! 막 울면서 눈을 부비대서 업고 나갔더니 등등 영국을 묻고 잠이 들었어요....

먹은 음식 - 10:20 뽕빵

11:40 우유

12:30 용나물국, 빵, 두부조림, 장조림메주치킨

장 - 11:00 ~ 11:40

2:20 ~ 2:40

97년 3월 25일 집에서

뜻밖에도 모든 선생님들이 이이가 적응을 잘 한다고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이이의 하루가 끝났다고 써있어 어떻게 생활하는지 훑히 알 것 같습니다. 오후에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낮에 잠을 못 잤는지 뺨에는 깨지 않고 푹 잔다. 낮에 날씨가 조금 따뜻하면 옷벗을 벗겨 주시고 뺨에 입은 바지는 실내에선 벗겨주면 좋겠습니다. 열이 많은 아이라 땀 많은 걸 아주 싫어해요. 집에서 잠을 재울 때는 주로 책을 읽어 주고 천정이 좋아하는 노래는 제목은 모르겠는데, "낮에 놀다 두고 언 나뭇잎 배는 언마 곁에 누워도 ..." 아시겠죠? 습관이 되었는지 잠을 재울 때 이 노래 들려주면 편안해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천정도 적응을 하면 선생님도 조금 편한해 지 겁니다.

-관찰일기를 꾸준히 써서 아이의 변화에 교사 스스로 민감할 필요가 있다.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 맞는 단계를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교사간 협력작업

-교사가 동일 공간에 여러명 있는 경우는 더욱이 협력작업이 필요하다. 적응시 애착을 갖게 되는 교사를 인정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잠시 적응하는 아이를 돌봐주려 하고 아주 서서히 친해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애착대상인 교사는 교만하지 말고 다른 교사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응하는 외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다른 교사임을 잊지 않아야 교사간의 갈등이 없다.

-동일시설내에 반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담임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유아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전 담임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연구해야 한다.

예) 유씨(어아, 40개월)은 3년째 그 어린
이집에 다니는데 2년 동안 같이 생활하던
선생님과 헤어져서 새로운 교사(2명)와 생
활하게 되었다. 교사의 아동수도 2년 동안
은 14명이었다가 40명으로 늘어 나는 더욱
복잡해지고 하루종일 울음섞인 목소리로
“언마 언제 락요?” “선생님, 선생님”하고
교사책상 옆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 새
로운 담임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
영이 새 담임 교사는 몇차례 지나가는 말
로 그 전 선생님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였으
나, “원래 잘 우는 아이니 받아주지 말고
그냥 두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답변만 들
었다. 그러나, 새 담임교사는 지영이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그전 담임과 이야기를 했고, 그전 선생
님도 지영이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
다. 그리고 그전 담임선생님도 지영이를
따로 불러 두 교사 모두 지영이를 걱정하
고 있으며 지영이가 새로운 교실에 잘 적
응하기 바란다고 타일렀고, 지영이의 교
실에 갈때 마다 지영이에게 친밀감을 표시하
고 지영이가 잘 지낼 수 있을거라는 신뢰
감을 강하게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의식적
인 노력이 며칠동안 진행되자 지영이도 웃
고 가말히 구석에만 있는 시간이 많이 줄
었다.

-교사의 상호적려가 필요하다. 교사가 새로운 아이에게 잘 적응하기 위해 동료교사가 협력하는 경우

예)이** (남아 30개월) 은 2년제 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반이 바뀌어 새로운 담임을 만나게 되었다. 약간 수줍음을 타

는 성격이지만 대체로 원만하여 주의를 크게 기울이지 않았는데 전 해에 담임이었던 교사가 현 담임교사에게 “**는 낮가림이 심해서 처음 어린이집에 왔을 때는 몇달 동안 말도 않고 혼자서만 놀았는데 반이 바뀌는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선생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하며 격려의 말을 했다. 덕분에 현 담임은 **를 더욱 관심있게 보게 되었고, 다른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교사 협력의 여러가지 방법
- 교사간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한 의견교환, 정보교환의 형태

· 유아의 특성과 그 전 생활에 대해 문서화된 보고서

· 어린이집 전체 교사가 함께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모임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 동료 교사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교사 협력 시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아이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이나 평가를 피하고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

교사간의 교육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비판에 있어서도 여유있게 받아들이는 것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일반적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

협력작업의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지속
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결과에 대해 함께
평가하고 공유하는 것

3. 적응의 완성

적응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는 아이가 교사의 위로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가 이다.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아이, 부모가 함께 극복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상담하고 내일 12시간 아이를 맡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현 중 토에서 적응단계를 밟기 위한 교사의 노력은 아주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에게 필요한 과정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교사가 존재한다면 힘들지만 현실정에 맞춰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보육공간을 자주 옮기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갈 경우 그 담임에게 간단한 편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놀이방에서는 대장으로 생활하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는 가장 어린 아이가 될 수도 있다. 여러가지 변인들이 아이를 적응시키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간단하게 어떤 시설에서 생활했으며, 일과는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고, 아이의 발달 상황과 생활 과정을 쓴 보고서를 보내 줌으로써 다른 공간에 가서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들어오기 전 부터 미리 부모 상담과 적응실시기와 엄마와의 분리과정을 치밀하게 짰다고

한다. 4일 정도는 부모 중에 한 명이 아이와 함께 시설에 와야 하고 4일이 지난 후부터 분리를 실시한다. 보통 적응이 빠른 아이는 3일 느린 아이는 6일 정도 지나서 분리한다. 아주 어려운 아이는 관찰록을 작성해 가면서 차츰 시간을 늘린다. 적응 실시에 들어가서 보통 4일째 분리시도를 하는데 어린이가 힘들어하는 정도에 따라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조절한다. 분리를 한다고 해도 부모가 시설 안에 있으면서 잠시 아이와 떨어지는 것이다. 분리불안이 가장 심한 시기는 8개월에서 20개월 사이인데 이때가 타인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만큼 정서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분리불안 그 자체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3세이상이라도 분리불안이 나타나는데 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시기에 교사는 아이를 돌봄에 있어 모든 것을 어린이의 동의하에 한다. 적응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는 아이가 교사의 위로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가이다. 적응은 교사와의 적응 뿐만 아니라 환경(교실의 공간), 매일의 일과, 친구와의 적응을 모두 포함한다. 첫 분리는 20분을 넘지 않는다. 이 20분이라는 수치는 실험을 거쳐 검증된 것이다. [KDTA]

* 참고 자료: 적용 표준 단계(독일)

[[memo]]

영유아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위한 “적응” 표준교육단계
(독일 베를린 구청 보육시설을 위한 상담자 Ulrike Zierche)

베를린 Reinickendorf 구청

프로젝트 “교육의 질표준”, 1996.12

번역: 윤선영

단계/종류	적응준비: 적응 팜플렛	적응준비: 정보교환/첫만남
표준 7	구청의 적응팜플렛은 위원서와 함께 항상 보육시설로 부터 부모에게 전달된다.	입원 전 부모는 어린이와 함께 적응담당 교사에게 초대된다. (일반적으로 시설과 담당교사, 반/개별 동등과 같은 입원에 대한 Info.를 접하게 된다.) 적응모델에 대한 첫번째 개별적인 정보, 기타 필요한 약속
표준 5	구청의 적응 팜플렛은 위원서와 함께 거의 항상 보육시설로 부터 부모에게 전달된다.	입원 전 부모는 어린이와 함께 또는 부모만 적응담당교사에게 초대된다. (일반적으로 시설과 담당교사, 준비물, 시간, 반/개별, 동등과 같은 입원에 대한 Info.를 접하게 된다.) 어린이의 습관, 특징, 어린이와 부모의 생활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이의 개별적인 상황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수용된다. 어린이의 적응을 위한 첫번째 정보.
표준 3	구청의 적응팜플렛은 위원서와 함께 대부분 보육시설로 부터 부모에게 전달된다.	입원 전 부모는 어린이와 함께 또는 부모만 초대된다. (일반적으로 시설, 준비물, 시간, 반/개별, 보육시설의 원칙 등을 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습관, 특징, 어린이의 생활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적응모델을 위한 정보.
표준 1	없음	입원 전 부모와 보육시설의 정보를 위한 만남(일반적으로 시설, 시간, 준비물, 반/개별, 담당교사, 보육시설의 원칙 등등에 대한 정보)

단계/종류	적응준비: 적응을 위한 부모회	적응준비: 적응을 위한 부모개별 상담
표준 7	모든 새 부모들에게 적응을 위한 부모회가 매년 4/5월에 열린다. (9월 학기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	적응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는 어린이 없이 적응담당교사와 부모상담에 초대된다. 상담은 부모의 개별적인 상황을 수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어린이에 대한 정보(습관, 특징...)와 지금까지의 생활이전(인상생활, 가족관계, 형제자매...)은 부모에게 적응을 위한 충고, 정보, 자료가 된다.
표준 5	없음	입원 전 특별히 적응을 위해 적응교사와의 상담에 부모는 초대된다. (개별 또는 그룹으로). 적응 시간을 위한 충분한 정보는 부모에게 적응을 위한 자료가 된다.
표준 3	없음	없음
표준 1	없음	없음
단계/종류	적응실시: 부모참여	적응실시: 중단
표준 7	적응해야 할 모든 어린이는 부모 중 한명과 함께 실행한 첫번째 분리단계의 평가에 비추어 짧게 (6일) 또는 길게 (20일 까지) 적응한다. (INFANS참고)	적응작업을 중단했다가, 첫번째 적응담당교사 또는 주변의 다른 교사와 함께 새로운 적응작업을 시도해 본다.
표준 5	적응해야 할 모든 어린이는 첫번째 분리단계의 평가에 따라 짧게 (6일) 또는 길게 (20일 까지) 적응한다. (INFANS참고)	적응작업을 중단했다가, 첫번째 적응담당교사 또는 주변의 다른 교사와 함께 새로운 적응작업을 시도해 본다.
표준 3	어린이를 적응시키되 구체적인 시간모델에 따라서가 아닌 몇일간 부모 중 한명이 참여를 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적응작업을 중단했다가 주변의 다른 교사가 계속해서 적응작업을 이행한다. (새로운 시도가 아니고 같은 유형의 작업)
표준 1	어린이의 위원이 부모 중 한명이 짧은 시간 참여를 하면서 이루어진다.	중단 후 목표가 있는 적응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계/종류	적응실시:이어지는 과정	3세에서 취학이전의 어린이 적응
표준 7	성공적인 분리시도 후 (어린이가 교사를 관계자로 받아들인다), 어린이가 힘들어하는 정도에 따라 머무는 시간과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을 점차 늘려간다. 부모는 어린이가 보육시설에 머무는 동안 시설에 머문다.	적응의 준비, 교사와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까지의 부모참여와 같은 적응의 원칙은 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그 원칙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융통성있게 세워지고, 보충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 부모에게는 그들이 어린이와 잠시 떨어져 머무는 동안 편안하게 있을 공간이 시설에 마련된다. 적응시간이 길어질 경우 부모와 함께 있는 계속적인 시간을 계획한다. (INFANS에 따라)
표준 5	성공적인 분리시도 후 (어린이가 교사를 관계자로 받아들인다), 어린이의 머무는 시간과 분리시간을 점차 늘려간다. 부모는 성공적인 분리시도에서 적응이 끝날 때까지 짧은 시간에 (몇분안에) 다시 아이에게 올 수 있는 곳에 머문다. 적응시간이 길어질 경우 부모는 계속 그룹에 머문다(INFANS에 따라)	부모의 준비, 적응이 될 때까지 어린이와 동반하는 부모참여와 같은 표준 5의 적응원칙은 큰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그 원칙은 어린이의 발달을 중심으로 융통성 있게 세워진다.
표준 3	분리시간을 늘린다. 부모는 아이와의 성공적인 분리 후 전화로 연락하여 짧은 시간안에(몇분안에) 다시 올 수 있는 곳에 머문다. 적응시간이 길어질 경우, 부모는 시간적으로 짜여진 모델 없이 그룹안에서 계속 머문다.	큰 어린이들은 표준 3의 원칙에 따라 적응된다. 적응은 어린이의 발달에 적합하게 융통성 있게 형성된다.
표준 1	부모는 어린이와 분리 후 전화로 연락하여 짧은 시간안에 (몇분안에) 다시 올 수 있는 곳에 머문다.	큰 어린이들은 표준 1의 원칙에 따라 적응된다. 적응은 어린이의 발달에 적합하게 융통성 있게 형성된다.

단계/종류	적응실시:적응상황	적응실시:처음의 나흘간
표준 7	적응담당교사는 자신과 어린이와 견고한 관계가 형성될때 까지 끊임없이 어린이에게 적응한다. 교사는 어린이를 교실의 공간에, 그룹의 다른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매일의 일과에 차례로 적응시킨다. 어린이가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적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적응: 교사와 모든 돌보는 일을 어린이의 동의하에 맡는다. 어린이는 불편한 상황에 있어서 교사에게 의해 위로를 받는 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인다. (거부하지 않는다.)	최소한 처음 나흘간의 적응상황: 1어린이-1교사-1부 또는 모가 매번 최소한 한 시간동안, 전체를 볼 수 있는 같은 공간에서, 어린이의 연령에 맞는 놀이감이 제공된다. 처음의 짧은 분리단계는 (최대20분)처음의 나흘동안에 하지 않는다.
표준 5	적응담당교사는 어린이를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그룹의 다른 어린이들에게, 교실 공간에, 그리고 매일의 일과에 적응시킨다. 적응담당교사가 어린이를 우선 교사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세가지 요소에 적응시키고 나면, 적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 처음 나흘간의 적응상황: 부모 중 한명과 작은 그룹(최대6명)에서, 같은 교실 공간, 매번 최소한 한시간 동안, 적응담당교사는 어린이에게 긴밀한 관심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첫번째의 짧은 분리단계는(최대20분)처음의 나흘동안에 하지 않는다.
표준 3	어린이는 무엇보다 다음 세가지 요소에 적응한다. 매일의 일과, 그룹의 다른 어린이들, 그리고 교실 공간. 어린이가 위의 세가지 요소에 적응하게 되면, 적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적응담당교사에 의해서 어린이가 그룹활동을 하게 되면, 적응이 된 것이다. 동반부모의 첫 분리시간은 오래지 않아 끝 있을 것이다.
표준 1	어린이는 무엇보다 다음 중 두가지 요소에 적응한다: 매일의 일과, 그룹의 다른 어린이들, 그리고 교실 공간. 어린이가 위의 세 요소중 두가지 요소에 적응되면, 적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교사가 바뀌어도 어린이가 참여하여 그룹활동이 이루어지면 적응이 된 것이다. 부모는 가능하면 짧게 머문다.

초기적응지도 (일본 오사카보육원 4곳을 중심으로)

박희명(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

1. 들어가며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가정 밖의 사회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곳이 바로 어린이집인 만큼, 엄마와의 분리를 순조롭게 하고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할 수 돕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과정이 어떻게 따라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신뢰 또는 불신의 마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성장의 단계에 있으면서 낮가림, 부모의존성이 심한 영유아기에 일하는 부모의 곁을 종일

떨어져 있는다-더구나 자발적 의지가 아닌 상태에는-는 것은 아이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그렇게 불안한 상태의 아이와 여러 다른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집단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교사에게도 전체 보육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의 초기적응지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일본 보육시설의 사례-희망의 문 보육원을 중심으로

내가 연수한 일본 오사카의 여러 보육시설들은 대부분 역사가 오래된 곳으로,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보육료 직접지원을 받는 취업부모의 자녀들을 보육하고 있다. 일본의 통상보육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은 물론, 연장, 야간, 일시 보육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몇몇 보육시설에서는 혼합연령보육과 장애아 통합보육을 주 내용으로 하는 다데와리 보육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도 있었다.

부모가 취업 중에 있어야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나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당연시하는

편이다. 이것은 개인의 자립을 중요시하는 일본 사회의 풍조와도 연관이 있는 듯하다. 3세 이상의 유아들은 초기적응시 특별한 프로그램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또 대부분 다른 보육시설을 경험했거나, 이미 영아 때 부터 다녔던 아이들이 계속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다. 영아를 위주로 본 초기적응지도에서 중심은 보육시간을 조절하는 것이다. 부모 상담과 교사 회의를 통해 아이 개인별로 기간, 상황 등을 자주 점검한다.

희망의 문 보육원은 0~5세아들이 많아 영아보육원, 희망의 문 보육원이라는 두 체계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고, 소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동보육소와 일시 야간 보육원의 두 체계가 더 있다. 아이가 입소하면 연령에 따라 계속 반이 올라가기 때문에 학기 초의 새 원아는 25~30명 정도 뿐이다. 결원이 생기면 학기 중에도 입소는 가능하다.

아래의 표는 주로 0세아, 1~2세아들의 보육원에 초기적응 하는 것을 돕기 위한 보육시간조절 프로그램이다. 0세의 경우 2주일, 1~2세의 경우 1주일을 기본 기간으로 하지만 아이의 상태나 부모의 직업 종류 및 참여도에 따라 달라지며, 교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해 나간다.

일 정	보 육 시 간	중식	낮잠	간식
일(요일)~ 일()	오전 9시~오전 11시	○	○	○
일(요일)~ 일()	오전 9시~오전 12시	○	○	○
일(요일)~ 일()	오전 9시~오전 3시	○	○	○
일()	오전 9시~오후 4시	○	○	○
일()	오전 9시~오후 5시	○	○	○
일()~	장시간, 연장보육 개시	○	○	○

3세 이상의 유아는 대부분 영아보육소 및 일시보육소를 거쳐서 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적응시 큰 어려움은 없다. 중간 입소아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이들간 그룹활동이나 짝(pair)의 도움을 받으며 보육소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다.

4세의 아카네는 6월에 새로 입소한 여자 아이이다. 이전에 보육소 경험이 약간 있어서 인지, 초기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지만 보육소 내의 여러 규칙이나 하루 일과, 친구들과의 놀이 등에는 아직 익숙치 못했다. 아카네는 30명 정도로 구성된 스미제그룹 내에 6명의 3.4.5세로 구성된 이카그룹의 성원이 되었다. 이카그룹은 6세(생일이 지났으므로)의 미나미가 리드하면

서 함께 지내는데 아카네는 미나미로 부터 보육원의 일상생활이나 다양한 놀이, 친구, 언니 등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속에서 교사는 일일이 아이에게 일러주고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러한 그룹·학급의 활동과 놀이를 관찰하고 일정한 회의를 통해 여러 교사들과 전체 틀 속에서 점검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아 통합보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애원 보육소의 경우, 체계화된 초기적응 프로그램은 없지만, 부분적으로 '쿠마노쿠'라는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한다. '쿠마

노쿠'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나 동네에 같이 놀 도래 친구들이 없는 아이들이 1주일에 한 두 번씩 원하는 날짜에 엄마와 함께 와서 오전 10시부터 약 2~3시

간 가랑 노는 프로그램이다. 영아반은 며칠 정도 엄마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있고 유아반은 특별적응과정 없이 지내지만 초기에 선생님과 그룹 아이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친구들과 제대로 놀 수 없는 고스께(3세 남아)는 보육소에 들어오기 위해 의사와 상담을 한 후 천천히 적응시키는 것이 좋다는 진단을 받고 96년 1월부터 '쿠마노쿠'에 다녔다. 그런 후 4월부터는 3.4.5세 다데와리반 스미제 그룹에 들어오게 되었다. 4월엔 내내 울어서 교사가 안고 있었고, 5월부터는 조금씩 인사를 하며 생일잔치 행사때 참여하면서 그룹 내 형들을 따랐다. 6월에는 우는 횟수가 줄어들고 시설 내의 연령별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또래와 어울리는 기회를 가졌다.

제일 한국인이 많은 지역민들과 유대관계가 높은 시설들인 성화보육원과 애신보육원은 입소시 교사와 부모가 충분한 상담을 하여 아이 상태에 따르는 점진적 적응기간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애신보육원은 처음 적응과정 중에 주로 돌보는 교사를 정하고

3.마치며

지금까지 일본연수 중에 살펴본 초기적응 지도 프로그램과 과정을 간추려 보았다. 연수기간, 의사소통의 한계, 연수내용의 다양성 때문에 관찰을 포함한 충분한 내용을 다루지 못함이 아쉽다. 그러나 교사들이 부모와 협력하여 특별한 관심으로 아이 중심의 점진적 적응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시놀이 프

적응기간 중간시기에 가정방문을 통해 부모와 함께 아이의 상태를 의논한다. 성화보육원은 성애원과 비슷한 '뽀뽀뽀'라는 프로그램(원래는 지역민을 만나고, 지역아이들과 놀이문화를 곁고루 공유하고 육아 상담도 하는 지역보육프로그램이다)을 통해 흥미를 갖고 보육원과 친해지고 적응해 나가는 경우도 있다.

로그램, 놀이감을 빨리 주는 것이 아닌 친구관계를 통한 도우모가 놀이 등 다양한 형식과 내용은 다각도의 접근과정을 제시해 준다.

자기 집과 가까운 한 동네의 놀 보던 보육원을 친구나 언니, 오빠들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가며 다닌다는 것은 아이에겐 분명 더 안정되고 친숙한 시작이 될 것이다.

[KDTA]

<<MEMO>>

식사지도

김진숙(새터어린이집 교사)

식사지도의 목적

바른 식습관과 식기호의 형성과 바람직한 식사태도를 몸에 익히도록 한다.

식사지도의 내용

1. 음식섭취의 필요성을 알린다.
2. 식사전, 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3. 음식을 소중히 여기게 한다.
4. 바른 자세로 먹으며 천천히 씹어 먹고 식사도중에 장난하지 않도록 한다.
5. 음식을 가려먹지 않는다.
6. 식사전 손을 씻고, 식사후 입, 손을 깨끗이 하고 양치질을 한다.
7. 스스로 먹도록 한다.

식사지도의 예

1. 스스로 먹지 않는 경우

가영이는 싫어하는 음식 말고는 잘 먹다가 어느날 부터 잘 먹던 음식도 혼자서 먹지 않을 때가 많고 이름을 불러 먹으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거나 한순가락 먹여주어야 그제서 조금만 먹거나 토하기도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가영이가 그럴 때 떠먹여주거나 굶기거나 칭찬, 옥박지르는 등의 교사들의 대응이 불규칙적이었는데 그럴때의 아이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가영이는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뚜렷하고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없고 교사의 칭찬에 민감하며 집에서는 가영이가 밥을 안먹으면 좋아하는 고기반찬을 해주어서 먹인다.

가영이가 혼자서 밥을 먹는 습관이 들여지기까지 밥을 떠먹여 주지않고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미리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최소한 주며 밥은 다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과 반찬은 먹기 싫어

하면 한번 이상 먹는 것으로 하였다. 시도 결과, 식사습관이 많이 좋아졌고 스스로 먹게 되었고 식사시간이 짧아졌다.

2. 음식을 가려 먹는 경우

대부분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하는 데 민식이 유난히 생선이나 고기만 먹고 반찬의 종류에 따라서 밥을 먹는 것까지 결정한다.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그것만 먹고 일어나거나 가만히 앉아있다. 밥을 먹이기 위해 좋아하는 음식을 더주며 먹으라고 하면 그 음식만 먹고 다른 것은 먹지 않아서 옆에서 밥에다 반찬을 얹어주어 먹게 했다. 그러자 먹여주기만을 바라고 좋아하는 반찬이라를 더 주어도 혼자서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민식인 초등학교 4학년인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거의 다 도와주고 있다. 집에서 밥은 잘 안먹고 먹여주고 있다. 그래서 혼자서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음식양을 줄이고 먹지 않으려고 하면 억지로 먹게 하지 않고 반찬을 더 줄 때는 밥을 먹겠다는 약속을 받고 혼자서 먹게 하였다. 야채는 좋아하는 반찬을 더주며 이것도 먹어볼래 하며 권유를 해서 맛을 보게 하였다. 그 결과 혼자서 밥을 먹게 되었고 야채를 잘 먹지는 않지만 고기나 생선류가 없어도 밥을 먹는다. 아직도 잘 안먹을 때가 있는데 불규칙적이다. 싫어하는 반찬만 있어도 잘 먹을 때가 있고 좋아하는 반찬이 있어도 안먹을 때도 있다.

3. 음식으로 장난을 치는 경우

정민이는 식사를 할 때 밥, 국, 반찬을 모두 섞어 식판에 가득 늘어놓은채 조금 먹고는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있다. 밥을

먹게 하면 손으로 먹는데 다 먹었어요 하고 가져온 식판을 보면 밥알이 여기저기 가득하다. 깨끗이 먹으라고 주의를 주어도 여전히 집에서는 어떤지 여쭙어보았는데 집에서는 잘 먹는다고 하고 한번 어머니가 오셔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때는 숟가락을 사용해 깨끗이 먹었다. 그래서 먹기 전에 숟가락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먹은 뒤에는 남은 밥을 정리를 해주고 모두 섞어놓은 것은 버려야 되니까 다 먹어야 함을 되풀이 해서 이야기 해주었더니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

토론 내용

1. 대부분 어린이집에서는 예외는 있지만 음식을(점심, 간식시간에 주어진 음식)을 다먹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교사들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김없이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어진 음식이 아이들의 영양상 고려한 음식이고, 골고루 먹어야 튼튼하며, 음식맛을 골고루 알기위해, 음식은 귀하니까, 식사관이 커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먹거리의 대부분을 해결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모들이 잘 먹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 등이다.

다 먹을 것이 강요되지 않으면서 먹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1)음식의 양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적은 양을 주고 더 먹을 수 있게 한다. 3)자신이 결정한 것은 다먹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아이들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고기, 햄, 생선, 과자류를 좋아하고 시금치, 당

근 등의 야채, 콩 등을 싫어한다. 이런 기호는 어른의 영향일 수 있다. 크면서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유아기에 식사습관의 기초가 형성되기 때문에 먹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음식선호도를 존중하는 속에서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잘 안먹는 음식의 경우, 요리 실습이나 재료를 직접 곁해보는 것을 통해 식품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다양한 조리법을 사용해 먹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과자류나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피해 음식의 맛을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3. 식사지도를 하는데 주의할 점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게 한다. 잘 먹지 않는 경우 식사시간의 분위기, 기분이 많이 좌우된다. 식사전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음식의 종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거나 조리법, 맛 등에 대해 이야기는 나누어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한다.

강요되어 먹게 하지 않는다. 음식의 종류나 먹는 방법 등이 강요될 경우 커서 특정한 음식에 대해 거부할 하거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결정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게 한다.

4. 남은 음식 문제

야채나 남긴 음식은 억지로 먹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게 하는 데 그로 인해 버려지는 음식이 많다. 남은 음식을 그냥 버리는 것이 일상화 될 경우 아이들이 음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 양을 조금 적게해서 더 주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남을 경우 깨끗한 음식은 모아 먹을 수 있게 한다. 음식을 버리지 않아야 함을 자주 이야기해 알 수 있게 한다.

5. 바른 식사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집에서의 식사습관이 어린이집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어린이집에서 체제를 받는 인스턴트 식품, 과자, 사탕류를 집에서 요구하고 해결할 때가 많다. 문제가 있는 경우 부모와 같이 해결방법을 의논하여 집에서도 일관성있게 지도하도록 한다. 어린이집 식단을 보내어 음식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영양상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의 먹을거리에 대한 생각을 부모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서 마찰을 줄여나가도록 한다.

6. 음식이 풍요로워졌고 아이들이 잘 먹고 발육상태가 좋고 식단상의 영양은 풍부하지만 식단대로 다 먹게되는 것도 아니고 균형있게 자라는 지는 알 수 없다. 과학적인 영양상태에 대한 검사를 통해 영양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는문제

1. 대규모의 집단 급식의 경우 아이들의 상태에 맞게 음식을 준비해 주기 힘들다. 식단도 일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담당하는 교사의 의견이 제시, 해결되기가 힘들다. 식사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야 할 경우 아이들의 기호, 습관을 존중해야 하는 부분과 갈등이 생긴다. 운영상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경우 운영자의 가치관이 중요하다.

2. [스스로 먹게] 하려는 것과 골고루, 영양상 먹게하는 것이 상반될 때가 있다. 이럴때는 어느 것을 우선에 두어야 하고 어느 정도 교사가 개입해야 하는 걸까?

KDTA

일본의 식사지도

이현경(새터어린이집 교사)

이곳에 와서 놀란 것은 아이들이 너무 잘 먹는다는 것이었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의 식사시간을 꼬박 채우면서 마음대로 더 갖다 먹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눈다. 심하게 장난치거나 돌아다니거나, 먹지는 않고 이야기만 할 경우 교사의 개입이 있지만, 식사시간 자체가 자유롭고 여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4곳의 시설중 한 곳을 빼고는, 큰 아이들 그룹이 배식 준비를 한다. 여기에는 식습관의 문제를 적기보단 식사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적어보겠다.

1) 식사시간

식사시간은 영아인 경우, 11시부터 준비된다. 낮잠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큰 아이들 보다는 일찍 밥을 먹어야 한다. 식사 전에 아이들 손씻기기, 동화 읽어주기를 하며 바깥놀이 후에는 샤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사시간은 그것에 맞춰 조정된다.

큰 반인 경우는 11시 30분 부터 식사준비에 들어간다. 식사를 마치기까지 거의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아이들이 식사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뒷정리도 아이들이 하는 시설이 있어 점심시간은 넉넉한 편이다.

2) 교사의 준비

이곳은 시설이 커서 아이들 수나 교사 수가 많고 주방의 인원도 많다. 또 아이들

중에는 아토피가 심한 경우도 있어 그런 아이들에 대한 요리는 따로 신경을 써야 한다.

교사는 오전 중 출석인원을 확인하고 주방에 알려준다. 애신의 5세반에서는 출석인원도 아이들이 알려준다. 각반 배식은 엘리베이터나 배식 끝차로 되는데 아이들과 준비를 함께 한다.

3) 집에서의 준비

대부분 컵과 개인수건을 기본으로 갖고 온다. 곳에 따라 수저까지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큰 시설들이라 일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약간은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갔던 공립보육소의 한 곳은 집에서 밥을 준비해오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인 면도 있고, 0세~2세 아이들 음식에 신경이 많이 감으로 주방의 일을 덜기 위해서라고 했다.

4) 식사진행

희망의 문이나 성애원, 애신은 반 안에 몇 개의 그룹이 있다. 그 그룹은 반 크기에 따라 4~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사준비, 먹여주기, 출석부르기, 청소 등의 역할을 그룹이 돌아가면서 하게 된다. 희망의 문은 식사당번이 1주일에 한번씩 그룹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식사당번은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올라와서 밥 먹을 책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의논하고 배식의 전

과정을 교사와 함께 한다. 이때 조의 대장인 5세아의 역할이 큰데, 3·4세가 보고 배우도록 하려는 의도이자, 식사가 모든 사람 앞에 놓였는지 빠짐없이 행거서 모두 식사 시간을 공유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성애원은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며 당번을 한다. 그룹마다 자리가 있고 각 그룹은 구성원이 식사를 전부 마쳐야 움직일 수 있다. 행주로 상을 닦고 상을 옮기는 일까지 그룹이 알아서 한다. 애신도 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한명씩 나와 조를 이루며, 먹여주기, 식사준비, 오후 뒷정리까지 한다. 애신은 식사시간이 끝났다는 걸 피아노로 알려준다. 아이들이 떨어진 밥알을 줍고 걸레질을 한다. 성화에서는 교사가 음식을 그릇에 담아놓으면 기도 후 아이들이 각자 가져다가 먹는다. 더 먹고 싶을 때는 자신이 자유롭게 덜어다 먹는다. 동화보육소인 야다교육의 후보육소에서는 11시 30분부터 식사시간이 시작되는데 먹고 싶은 사람부터 식당에서 온 배식 끝차를 열어서 먹는다. 그 아이가 놀이를 계속 하려한다면 좀 더 하도록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나 노래는 부르지 않지만 마치는 시간은 있다. 이러한 방법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실시했다고 한다.

5) 아토피

이곳의 심각한 문제는 아토피성 재질을 가진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계란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벌일 정도니, 아토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발병 원인도 개인마다 다르다고 한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아토피성 아이들을 위해 따로 준비를 하고 교사들도 신경을 쓴다.

계란, 마요네즈, 치즈를 빼고 요리하는데 병원의 처방대로 부모가 원하는대로 해준다. 아토피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수건도 따로 사용한다. 공립보육소 중에는 아토피성향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 따로 영양사를 두는 경우도 있었다. 성애원은 아토피 체질 아이를 위해 특별히 따로 조리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피해야 할 식품을 고려하여 요리를 한다.

6) 식단

일본 어린이집 음식은 서구적인 것이 많았다. 늘 고기가 빠지지 않고 빵이나 면이 1주일에 한번씩은 식단으로 잡혀져 있다. 후식으로 늘 과일 한조각이 나오는 곳도 있었고 치즈가 빠지지 않으며 우유는 오후간식때 꼭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한 이유는 민생국지도에 따른 칼로리 양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한다.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하루의 식사와 간식을 진열해서 부모들이 보도록 하는 곳도 있다.

7) 기타

몇몇 시설에서는 작년에 유행한 0157전염병때문에 소독약을 쓰고 있다. 포크없이 먹는 음식-빵, 과자-을 줄 때에는 손을 소독약으로 행구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닦고, 영아인 경우는 식사, 간식때 꼭꼭 손을 닦인다. 작년의 0157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소독약을 신체에 사용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염병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계속 써야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살기가 좋아지면서 먹는 일에 관심이 적어 음식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면도 있고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하고 고기류를 좋아해서 문제로 느끼는 곳도 있었다. 한 공립보육소는 마당이 넓어 야채도 아이들과 키르는데 자신들이 직접 길렀기 때문에 집에서 먹지 않아도 보육소에서는 먹는다고 한다.

8) 장애아동의 식사

성애원에는 안면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음식을 씹기가 어려워 따로 음식을 마련한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음식을 상에 놔두고 준비도 함께 한다. 그 아이는 교사가 국물찌는 기계로 국물만 짜서 주는데, 간식 때는 과자를 조금 먹고 음료를 마신다. 음식을 치워서 먹어야 할 때도 아이에게 허락을 받는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고 전체 속에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음식이 버려져야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기도 했지만, 그 문화 속에서는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곳에 와서 아이들이 많이 먹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또 한가지 눈에 띄었던 것은 교사들이 마루바닥에 앉아서 그릇을 들고 불편하게 식사를 하는 점이었다. 또 젓가락만 사용을 하니 그릇을 입에 대고 젓가락으로 긁어서 먹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처음엔 웃기기도 하고 눈썹이 찌프러지기도 했었다. 그러던 차에 공립인 동화보육소에 갔는데 그곳에선 외국인 아이들과 차별부락의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식습관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보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였다. 성화보육원에서는 아이들 대부분이 개일교포 아이들이라 국에 밥을 말아 먹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한 교사는 한국에 갔다 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면 안된다고 했었다. 하지만 한국에 다녀 온 뒤로는 밥을 국에 말아먹는 것을 인정하며 숟가락을 갖다 준다고 했다. 애신보육원에서도 밥과 국, 반찬을 따로 먹든, 국에 밥을 말아먹든 다 허용된다.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식사의 형식 문제는 미개니 문명이니 하며 가를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음식을 어금니로 자작자작 씹어서 삼킬 줄 알고 그것이 우리의 몸과 피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줄 알게 되면 좋지 않겠는가.

또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는 급히 채촉하기 보다는 서두르지 않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더 먹고 싶은 음식을 덜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아이 스스로 양을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식사방법인 것 같다. [KDTA]

<<MEMO>>

바깥놀이

전경숙(울망줄망어린이집)

1. 들어가며

보육시간 12시간, 조금씩 차이도 있겠지만 어느 어린이집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장시간 실내공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물론 교사들도 갑갑하지 않으세요?. 특히나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시원한 바람, 나무그늘, 시냇물 등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십니까?. 선뜻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떤 어린이집은 실외놀이 공간이 있어, 아이들을 굳이 멀리 데리고 나가지 않아도

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계실거예요. 만약 실외놀이 공간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갑갑해도 그냥 실내공간에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바깥놀이를 비교적 자주하는 수원지역 용기종기의 바깥놀이 프로그램,

- 점심먹고 주변동네 돌아보기
- 일주일에 한번 먼 나들이
- 일년에 두번 소풍가기가 정착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2. 바깥놀이의 필요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이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해방감을 느끼게 하고 주위에 자연물들을 더욱 풍부하게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일련의 교육활동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

다. 어린이집 아이들은 거의 열두 시간을 실내 공간에서 보내고 그곳이 생활교육의 장이므로 아이들에게 바깥놀이는 필수 불가결하다.

3. 바깥놀이를 하게 된 이유

- 공간의 문제 : 용기종기는 20평 남짓 되는 간이건물이라 여름엔 다른 곳보다 덥고 겨울엔 다른 곳보다 더 추운 공간이다. 15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교사 셋이 열두 시간을 지내기에는 그다지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갑갑해하고 짜증을 내거나 서로 부딪치는 횟수가 많았다.

- 주변환경 : 수인선이 동네 중간으로 지나가고 주변의 논과 밭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도 아이들이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 수원은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면 사찰, 공원, 성곽 등의 문화유산들이 많다

4. 바깥놀이를 하면서 겪은 시행착오

- 처음 바깥놀이 나갈 때 엄마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슬리퍼를 신겨 보내거나 도시락을 싸 보내지 않는 엄마도 있었다. 그리고 매주 나가는데도 도시락을 항상 김밥을 싸면서 부담을 느끼는 엄마가 있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서 집에서 먹는 반찬과 밥을 싸주도록 요청하면서 도시락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 차량운행 : 차량운행이 되지 않던 때라 바깥놀이 나갈 때마다 차량 때문에 번번히 고민했는데 가까운 곳은 걸어가고 먼 곳은 차량을 못 구해도 버스를 타고 갔다. 때로는 버스를 갈아타고 가는 경우까지 있었다. 엄마들은 교사 셋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 타고 가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 아이가 덜 고생스럽게 다녀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버스 탈 때의 요령들 - 버스는 차례차례 타야 하고, 올라타서는 꼭 붙잡아야 하며, 자리가 생기면 같이 나눠 앉아야 하고, 운전기사나 자리를 양보해주는 어른에게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하기 등 - 을 익혀 나갔기 때문에 버스타는 것이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 아이들이 걷는 데 이끌이 나 있다. 처음엔 안 걸으려고 하고 특히나 늘 안고 다니던 아이들은 걷기 싫으면 바닥에 아예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걷는데 익숙해져서 어디를 가도 걷고 뛰어다니면서 바깥놀이 나가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 사전답사 : 축산시험장 등의 관공서는 일주일 전에 공문을 띄워야 하는데, 바로 전날 전화만 했다가 못가는 일도 있었고 도청 빗꽃 구경은 시기가 지나서 빗꽃이 다 떨어진 다음에 간적도 있었다. 음성 꽃동네를 갈 때는 아이들에게 사전에 어떤 곳을 가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교사들도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갔다가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이것저것 우리들을 챙겨주었다.

다른 원에서 많이 나오고 잔디가 있어서 좋을 것 같아 답사를 하지 않은 채 갔던 효원공원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아이들이 보도블럭에서 놀아야 했다. 그래서 넘어지면 상처가 크게 났다. 제부도의 경우는 조수간만의 차를 미리 알지 못해서 가는 것을 연기하기도 하였다. 철도박물관은 하루에 두번 모형기차를 운행하는데 시간을 못 맞추어서 관람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 해부터야 첫 해의 경험으로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사전조사가 얼마나 철저하냐가 그 야외수업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기온이 오르고 바람이 뜨거워질 무렵이면 아이들도 놀이방이 마냥 답답하기만 하다. 안전장치가 문제가 되어서 아이들의

출입을 막았던 옥상. 자부의 도움으로 놀이방을 두루고 그늘들까지 만들고 나니 손색없는 바깥놀이 시설이 되었다. 놀이방 내에서는 할 수 없었던 물놀이, 흙놀이가 이루어 진다. 물과 흙으로 할 수 있는 놀이는 너무나 많다.

풀 가득 물을 받아서 다이빙하기, 펠트 병에 물을 채워서 호수로 물을 쫓아 물폭탄 만들기, 바가지로 물 뿌리기, 물 옮겨 담기, 물안에서 침방거리기, 세제 풀어 놀잇감 닦기, 붓에 물 묻혀 바닥에 그림 그리기...

흙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옥상 바닥에 있는 흙을 가지고 반죽하고 뿌려보는 등 아이들 놀이는 무궁무진하다 바깥놀이 기구는 말과 자전거, 자동차를 준비했는데 모자라는 것은 엄마, 아빠들에게 부탁했다. 아이들이 집보다 놀이방에서 더 오래 놀기 때문에 부모들은 기꺼이 집에서 놀던 말, 자동차, 자전거를 가져다 주었다.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아이 몰래 갖다 놓는 엄마, 아빠도 있다. 그래서 아이들도 누구 것이 아니라 놀이방 것으로, 나누어 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래와 그늘막은 장마가 끝나면 조만간 구비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늘막 아래서 왔다갔다 하며 물과 모래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면 바깥놀이 공간으로 손색없겠지요?

2)동네 한바퀴 (용기종기)

12시에 점심을 먹기 시작하면 12시 40분쯤엔 거의 다 식사를 마친다.

신발도 혼자 신고 동생들 손 잡고, 친구집 앞을 지나 교회 마당의 놀이터로 놀러 간다. 모래놀이, 타이어 놀이 한 후 기차길도 걸어보고 (예전에 수인선이 다녔을 때

는 손도 흔들어 주었다). 지금은 아파트 공사로 밭, 논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메뚜기 잡기, 콩 까보기, 방아깨비, 방아찍기, 고구마순 꺾어보기, 흙 파보기, 비온뒤 지렁이 보기, 얼음판(논)에서 비닐 썰매타기, 논두렁 걸어보기, 허수아비 되어보기, 논에 버린 쓰레기 관찰하기, 쭈, 냉이, 매 캐보기, 거미집 파보기, 흙언덕 올라가보기, 개구리 소리 들어보기, 올챙이가 개구리 되어가는 모습 관찰하기 등이다.

한 예를 들어보겠다.

동네를 가로질러 들판에 있는 작은 동물농장 가는 길에 콩이나 곡식 야채들이 자라는 걸 볼 수 있고, 논 옆 도랑가에서 풀이랑, 나무토막을 떠내려 보내기도 하고, 폭이 좁은 논두렁을 걸어보기도 한다. 두 발이 온통 흙 속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한다. 작은 동물농장에는 개, 닭, 오리떼, 염소, 거위가 있다.

정훈이는(남 30개월) 개미나 벌레, 작은 동물은 무서워 하는데 염소나 개는 손으로 발목을 부여잡는다. 유정이는(남 23개월) 닭을 보고 "이제 갈꺼니까 인사해"했더니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해성이는 바깥놀이 나갈 때마다 골동품(부채살만 있는 부채, 잘라진 파이프관 등)을 주워온다. 그리고 아이들이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에 익숙해진다. 차가 오면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길 옆에 바짝 붙어 차가 지나갈때까지 가만히 서 있다. 차가 지나가고 나서야 움직이는 걸 아는 것이다. 한번은 정훈이와 손을 잡고 오는데 계속 가지 않고 서서 울고 있었다. 왜 그러는지 물라 무조건 손을 끌어 대기만 했는데 알

5. 바깥놀이의 예

1)옥상오르기-옥상을이용한

실외놀이 공간 (올망줄망)

고보니, 앞에서 차가 오고 있어서 그랬던가 보. 차가 오는데 서 있지 않고 간다고 그렇게 떼를 쓰던 모양이다. 차가 지나가고 나니까 선뜻 앞서 간다. "정훈아 차가 와서 그랬니?" 했더니 "응" 한다.

6. 바깥놀이를 통한 변화

(1) 아동의 변화

- 정서적 변화 :

정동욱(한진혜(5세)) : 처음에 밖으로 나갔을 때는 들만 따로 다니며 재밌게 놀더니 어느 순간부터 동생들을 쟁기고 도와주는 작은 선생님이 되었다. 예를 들어 익환이 준영이가 선생님 손에 못미치는 곳을 ناد나면 가서 데려 오고 어린 동생들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가 가방을 대신 메주든가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주기도 한다

- 신체(행동)적 변화 :

① 제희(18개월) : 엄마, 아빠에게 놀 안겨만 다니던 터라 밖에 나갔다 들어오려면 걷지 않아서 애를 먹었는데 바깥놀이 나가고부터는 잘 걷고 잘 다닌다.

② 지채원(19개월) : 처음 야외수업 나갈 때는 걸으려고 하지를 않았다. 조금 걷고는 줄곧 업으라고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썼다. 그냥 두고 가면 바닥에 주저앉아 신발이나 양말까지 벗어던지고 아예 오지를 않던 채원이 손 잡아주면 울기는 하지만 곧잘 걷는다.

-친자연적인변화: 성정훈(27월):5/2~6/20

3) 먼 나들이

먼 나들이를 갈 경우, 용기종기와 올망졸망어린이집이 함께 간다. 나들이 갈 때마다 나들이 일지를 쓰는데 참고로 소개한다.
*참고: 나들이 일지

<<야외수업에서 나타나는 변화>>

구분	야외수업에서 나타나는 모습	일상생활에서 모습	후속작업
용기종기	계단을 내려오려고 손을 짚었는데 개미가 있었으니까 다시 올라가며 소리를 지른다. "정훈아 괜찮아" 하며 일러내려오라고 해도 더 큰 소리를 지른다. 먼저 가며 혹은 따러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발만 동동구른다. 개미를 볼 때마다 움직이지 못하고 "배미야 배미야(개미야 개미야)" 한다	바퀴벌레나 작은 벌레는 무서워한다. 큰개나 다른 동물들은 목을 졸라 안 할 만큼 무서워하지 않는다.	개미를 자주 볼 수 있도록 개미를 주변에 놓아준다. 만져도 아무렇지않음을 스스로 느끼게끔 손위에 올려놓고 관찰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자주 한다.
효원	잔디밭에서 개미를 보고 울먹거리며 큰 소리를 지른다. 태호가 쫓아가서 얼른 손을 잡고 온다. (5/8)	그림속에서 개미가 나타난다. 선인장꽃을 보고도 개미라고 한다. (5/13)	
정동욱	능쪽으로 올라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과자에 잔뜩 들러붙어 있는 개미를 보고서 아예 주저앉아 지켜본다. 혼자 떨어져 있어 불려도 오지 않고 앉아 있다. "개미야 개미야" 하며 올라와 보여 주는데 죽은 벌을 들고 와서 개미란다.	개미도 잘 만지고 싶어 지어 작은 벌레들은 놀라죽이기도 한다	벌레들의 관심도 많고 열심히 지켜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야외수업에서 내일의 충화자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계속 지켜봐준다.

(2) 교사의 변화

- 옷을 버릴까, 위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의 벽에서 여유롭게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예) 다른기관의 아이들이 옷을 버릴까봐 물놀이 흠뻑이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반면 우리 아이들은 온 몸을 이용해서 놀 수 있다.

- 좁은 공간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자연 속에서 풀어 낼수가 있으므로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생활이 즐겁고 표정도 밝아진다.

(3) 부모의 변화

부모들도 아이들처럼 나들이가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다. 처음엔 도시락, 안전 문제로 부담감을 가지고 우려하는 부모들이 있었으나 차츰 나아졌고 아이들이 좋아하는만큼 부모로서 좋아한다.

올망졸망은 영아들이 많은데, 옥상에 설치된 놀이공간을 만들 때 자부들이 도움을 주었고 놀이기구를 구비하는데 부모들이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용기종기는 유아들이 많은데 대체로 부모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거나 학습적 효과가 뚜렷해보이는 곳(견학의 성격이 강한 철도 박물관 등)을 선호하고 용기종기에 있다가 7세가 되어 학원에 다니면서 오후에만 오는 아이들의 경우, 엄마들이 1주일에 한번이지만 학원 수업을 빠지게 하면서까지 나들이를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놀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에 대해 교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모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갈등을 빚기도 한다.

7. 바깥놀이에서 얻어지는 것들(수원지역 교사들이 경험하고 느낀 것 중심으로)

- 새로이 야외놀이에 적응해간다.
- 책이 아닌 실물을 통해 계절감각을 익힌다.
- 동식물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면서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새로운 인식을 한다. 민들레 꽃보기, 흙씨날리기, 작은 벌레나 곤충 관찰
- 옛날의 자연에서 얻어지는 먹거리들을 접하게 된다. 벼, 찰벼, 신아동 (도시출신 이모 중에 처음 먹어본 이모도 있음)
- 자연 그대로의 놀잇감을 활용하여 놀 줄 안다. 용건등: 흙놀이, 잔디밭뽕굴기, 조각상에서 미끄럼타기, 물놀이 등
- 형다운 모습을 보인다. 밖으로 나가면 큰아이들이 작은아이들

- 을 잘 챙긴다. 넘어져서 손발에 흠이 묻은 준영이를 정성스럽게 씻겨주는 진혜
- 이모(교사)들 허락없이 마음대로 다닌는 준영이와 익환이를 동욱이(6)와 진혜(5)는 손을 꼭잡으면서 끝까지 쟁겨준다. 그 덕에 이모는 두 놈 찾아다니느라고 진땀은 일이 거의 없다.
- 책임감 나가면 자기 가방, 자기 도시락을 꼭 챙긴다. (용기종기)
- 사진찍는 것에 대해 무척 자연스럽다. 사진찍는다고 포즈를 취하거나 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놀이를 계속한다
- 교사들의 사진 실력이 수준급 --> 자주 찍다보니 사진 실력이 는다.
- 도시락에 대한 부담감에서 해방 : 어

쳐다 가는 소풍이라면 김밥, 음료수, 과일 등을 하루종일 먹다 와도 모자랄 정도로 챙기겠지만 자주 나가다 보니 엄마들이 일상적이 되어서 김밥을 싸도 간단하게, 주로 밥에 집에서 먹는 반찬(김치 등)과 물, 그래서 아이들도 굳이 먹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간단하게 먹고 놀이에 관심을 갖게

된다. 가끔 이모들이 싸온 과일, 과자를 나누어 먹는 맛도 그만이다. 싸온 음식을 가방 가득 들고 앉아서 놀지도 못하는 모습보다는 훨씬 그림이 좋지 않은가? 지나가다 따먹는 나무열매도 간식거리가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는가? KOTA

<토론과제>

1. 바깥놀이를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법은?
2. 바깥놀이의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를 부모에게 어떻게 설득시킬까?

교사가 어떤 식으로 바깥놀이를 할까?

<<MEMO>>

*참고 <<야외수업일지>>

날 짜	1997 년 6 월 27 일 금 요일	장 소	경기도 산림 환경 연구원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연락처	0339)374-2490 374-2492(FAX)		
관람료			
관람시간			
관람대상			
교통편			
주의점	전시관 관람할 때 아이들이 함부로 만지지 않게 주의시켜야 한다 공문서를 먼저 보내야 한다. 무궁화 전시관까지 걸어가야 하므로 너무 짐이 많지 않게 간단하게 싸야 한다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걸어가면서 무엇인가를 하고 가면 좋겠다 (이야기, 노래, 열매따기)		
특징	수목전시관이 있어서 나무, 풀에 대한 화보판넬도 있고, 야생 조류 들짐승들 박재해 놓은것도 있었다. 무궁화 동산이라는 곳에 약수터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었는데 거기 가는 길에 자갈밭, 오솔길이 있고 줄줄 흐르는 물이 있어서 아이들이 즐거워했다 벚나무에서 버찌를 따 먹었는데 나무 열매가 많은것도 특징이다.		
참석교사	전경숙, 강영신, 윤금주		
참석아동	정동욱 정채란 안진혜 안익환 길준영 김경민 성경훈 김유정 지채원 김영빈 이은주 김나은 지성욱 권재은		

나가기전 아동관찰	비가와서 교사들은 갈까말까 망설였지만 아이들은 안 나가면 안된다는 표정으로 다들 들떠서 나가는 이야기를 했다. 길에서 차를 기다리면서도 너무 즐거워했다
활동내용 및 아동관찰	경기도 산림 환경 연구원(울망줄망) 1. 전시관 관람 2. 식물원 구경 3. 무궁화동산을 가기위해 오솔길 지나감(버찌도 따먹고, 물장난도 참) 4. 점심먹기 5. 무궁화동산까지 다녀오기 6. 간식먹기(수박) 동욱 진혜: 저번 용건릉에서 준영 익환이 멀리까지 간 것을 알고 멀리 못가게 한명씩 맡아서 손을 꼭 잡고 다녔다. 잘 못건거나 우는 동생이 있으면 달래주고 손잡고 함께 걸기도 하고 가방을 대신 매주기도 한다. 진혜는 넘어진 준영이 손을 한참 닦아주었다. 준영, 익환, 채란: 싸간 밥을 나누어 먹는데 무엇이 먹고 싶다고 확실하게 말을 한다.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저만큼 간 아이들이 철문이 닫혀 있으니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철문 밖에서 울고 있었다. 뛰어가서 열어주니까 다들 그냥 들어오는데 준영이는 머뭇거리다가 "안열려요"라고 불명확한 발음으로 말하고 들어왔다. 그 후로는 아이들이 모두 교사가 어디까지 갔나 확인하면서 걷고 뛴다.
평가	전시관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다 (박재원 동물에만 조금 관심을 보였다) 오솔길에서 벚을 따먹은 것은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먹거리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교사들이 더 즐거웠다. 비오는 날이라서 그렇게 덥지 않았는데 다들 물을 많이 싸서 들고 다니느라고 힘이 들었다. 기온에 따라 준비물을 다시 점검해야겠다 아이들과 가기에 너무 좋은 곳이다(오솔길, 물, 약수터등)

나가기전 아동관찰	경기도 산림 환경 연구원 용기종기 개구리반 지홍이는 병원에 가느라 함께 가지 못했다. 1. 전시관 관람(박제동물, 여러가지 곤충, 나무) 2. 식물원 관람 3. 놀이터까지 산책 4. 버찌 따먹기 5. 작은 도랑에서 물장난하기
활동내용 및 아동관찰	정훈(28개월)-- 도시락 물김치와 밥을 먹고나서 신발 신고 나가자마자 물속으로 들어가 침범침범, 나온이와 돌이서 오르락 내리락 뛰어 다니며 오래도록 논다. 유정(22개월)--작은 도랑에서 돌도 줍고 던지며 쪼그려 앉았더니 물속에 들어가 팔짝 팔짝 뛰어논다. 다리에 붉게 원가가 있어 다친 줄 알고 깜짝 놀라 봤더니 물에 낙서한 싸인펜이 번져 있었다. 채원(19개월)--지난 번에 몸이 아파 오지 못해서인지 전시관을 둘러보고 놀이터를 향해 가는데 손을 잡아 달라며 줄곧 칭얼 거린다 모처럼 함께 온 성욱(오빠)이와 손을 잡고 오랫동안 성욱이 손을 뿌리치고 교사가 손을 잡아주니 잘 따라 온다. 손을 놓으면 다시 운다. 벚을 따주었더니 울먹울먹하면서도 입을 벌린다. 영빈(19개월)--걸어오면서 손잡아 달라고 울며 오더니 점심 먹고 나서는 물가에 앉아서 돌을 물에 던지고 물가에 앉아 있다. 돌을 던져 물을 튀게 했더니 소리를 지르며 웃는다.
평가	비가 올 것 같아 망설이다가 강행한 야외수업인데 비가 오고 난 뒤라 그런지 더 신선하고 좋았다. 사실 전시관 관람에는 우리 아이들은 별반 관심이 없는 것 같고(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라는데) 무궁화 동산이랑 놀이터에 가기전 작은 도랑물에서 물장구치며 노는 것을 더 신나했다 올라가면서 따먹은 벚을 입술이 까매지도록 먹으며 맛있어 했다.

일본의 바깥놀이

지 연(웅기종기어린이집)

우리가 연수한 4군데의 보육원은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바깥 놀이를 할 수 있는 마당과 놀이 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근처에는 놀이 시설을 갖춘 공원이 여러 곳 있다. 그리고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는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시 되고 있다. 여기서는 4군데 중 애신 보육원의 바

깥 놀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애신 보육원은 아이들이 약 120명 가량 되며, 0~5세아가 연령별로 반을 구성하고 있으나 건물 2층에는 4~5세, 1층에는 0~3세 반이 있어 영아들도 쉽게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시간

날씨가 맑은 날은 보육원 생활의 시작과 끝이 바깥 놀이를 하는 마당에서 이루어진다. 오전에 2~3시간, 오후에 1시간 반~2시간 정도 하는데, 5세는 낮잠을 자지 않

기 때문에 오후에 2시간 정도 더 한다. 영아반(0~2세)은 주로 오전만 이용하고,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놀이시간이 길어진다.

2) 장소

① 마당

바깥놀이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포도 넝쿨이 그늘져 시원하게 흙 놀이를 할 수 있는 모래밭, 유아와 영아로 나누어진 수영장, 소꿉놀이도 할 수 있는 작은 기차 미끄럼틀, 물을 뿌리면 풀장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 큰 미끄럼틀, 넓고 높아서 타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하는 그물망, 3~4명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어 주는 나무 정글, 곡예사가 하듯 타는 타이어와 그네도 되고 의자도 되고 발판도 되는 타이어들, 여럿이 노래 부르며 함께 탈 수 있는 흔들차, 평상시는 자전거 차고로 사용되지만 가끔 아이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는 작은 나무 오두막집, 형아와 동생이 탈 수 있는 크고 작은 자전거들, 어린 친구들이 놀 타고 싶어하는 스케이트보드

외 여러가지의 놀이기구 (농구대, 여러가지 공, 소꿉놀이기구, 모래놀이기구 등)가 넉넉하게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마당 벽 쪽에는 아담한 나무들이 무궁화나무와 어우러져 서 있고, 나무 위엔 새둥지와 작은 아기새, 작은 화단 속에 꽃들, 흙 속에 숨어 있는 작은 벌레들이 있어 날마다 하루 종일 놀아도 아이들은 재미있어 한다. 또한 마당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바깥 놀이 후 씻을 수 있는 온수 시설과 놀이 중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

② 공원

마당보다 크고 넓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며 그네, 철봉, 모래밭, 미끄럼틀, 나무정글 등 놀이 시설과 크고 작은 나무들,

꽃, 작은 곤충들이 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집집마다 있는 화단의 꽃과 어항 속의 물고기도 구경하고, 동네도 구경할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비록 놀이 기구는 없지만 나뭇가지, 비닐, 병뚜껑 등을 주워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선생님과 함께 숭바꼭질, 술래잡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등을 하면서 뛰어놀 수도 있어서 공원놀이를 좋아한다.

3) 놀이 형태

연령에 따라 흥미거리와 놀이의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① 0세는 마당 한쪽에 깔판을 깔고 햇빛을 쬔면서 놀이감을 가지고 놀거나 끌차를 타고 마당을 돌며 형아들이 노는 것을 구경한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형아들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안아 주거나 뽀뽀해주면 좋아한다. 또한 가끔씩 공원으로 산보하면서 낮잠을 즐기기도 한다. 1,2세는 나이도 어리고 아이들이 많아서 산보는 아주 드물게 하고 주로 마당에서 바깥놀이를 한다.

② 1세는 아기새 구경하기, 꽃잎이나 나뭇잎 줍기, 작은 놀이감을 들고 돌아다니거나 흙을 파거나 뿌리는 놀이를 한다. 그리고 형아들이 태워주는 자전거 타기, 수도 틀어서 물의 촉감을 감상하는 물놀이, 작은 미끄럼틀 타기, 진흙탕(젖은 비와 물놀이로 땅이 질적해 있다)에서 뒹굴며 진흙 뭍하기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실내로 들어갈 때마다 더 하겠다고 떼쓰면서 우는 친구도 있다.

공원은 주로 4~5세가 이용하고 2~3세도 가끔 이용하는데 보육원 뒤의 공원은 반별로 가는 경우가 많고 좀 떨어진 공원은 4~5세 또는 3~5세가 짝을 지어 함께 가기도 한다. 0세반은 큰 수건, 모자, 휴지, 껌병, 놀이감을 준비해서 가끔씩 끌차를 타고 산책하러 가기도 한다. 그러나 아주 덥거나 추울 때는 자주 가지 않는다.

③ 2세는 1세와 비슷하다. 작은 벌레를 잡거나 형아들이 잡은 것 구경하기, 큰 미끄럼틀 타기, 타이어 속에 앉아 놀기를 좋아하며 또한 작은 자전거는 혼자서 탈 줄 안다. 그리고 요즘은 물놀이가 재미있는지 안 들어 가려고 도망 다니기도 한다.

④ 3세부터는 놀이에 흥미가 있으면 오랜 시간 동안 즐긴다. 또래와 함께 2-3명이 어우러져 노는데, 작은 기차 속에서 소꿉 놀이하기, 그물망 타기, 흔들차 타기, 잡기놀이, 큰 자전거 타기, 모래밭 속에서 포도알 찾기, 2명이 짝지어 도와가며 작은 벌레 잡아 모으기, 기구를 이용하는 흙탕 놀이, 선생님이 호스로 뿌려 주는 물을 맞으며 함께 놀기를 재미있어 한다. 또한 오두막집 뒤나 나무 속에 숨는 것을 좋아한다.

⑤ 4세는 철봉에서 재주를 부리거나 줄을 이용하여 그네타기, 손과 발의 힘을 조절하며 오름봉 타기, 소꿉놀이감으로 음식물 모양찍기와 당고만들기, 화단에 물주기, 뿌려주는 물줄기를 맞으며 춤추거나 장난

끼 있는 물건을 하는 등의 물놀이를 좋아한다.

⑥ 5세는 5~6명이 협력하여 의논하고 역할을 나누면서 물과 흙을 이용하여 공동작업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기술이 따르는 고운 흙 모으기, 농구나 축구 등의 공놀이 술래를 정하고 하는 술래잡기, 줄넘기, 동생들 흔들차나 자전거 태워주기, 물을 뿌

4) 상호작용

①아동과 아동

연령이 높아지면서 놀이 속에서 또래를 형성하여 여럿이 어울리거나 협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바깥놀이는 반 구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름도 서로 익히고 짝을 지어 공원 산보를 가는가 하면, 형과 아우가 서로 돕고 따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아우의 관계를 형성해간다. 특히 희망의 문, 성애원에서는 심한 장애아도 함께 보육하고 있는데 모든 일과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똑같이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바깥놀이에서도 장애아가 하고자 하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기구를 준비해주며 친구들이 당고를 만들어 주거나 벌레를 잡아 보여주거나 열매를 주워 가져다 주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다. 또한 물놀이를 할 때도 똑같이 팬티바람으로 몸의 한 부분이나마 물을 뿌려주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비록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함께 어울려서 즐거워하는 장애아 친구들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러가며 타는 미끄럼틀 타기 등 물놀이를 좋아한다.

연령별 놀이의 형태를 보면 연령이 높아갈수록 놀이에 대한 관심도와 집중도가 높아지고 놀이기구를 사용하는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놀이도 좀더 심도있게 진행된다. 여럿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놀이를 하고 놀이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②교사와 아동

교사의 시선은 늘 아이들에게 머물러 있으며 어린 연령의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격려해 주면서(잘한다, 잘 할 수 있다 등) 도와준다. 또한 아이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반 구분없이 가까이에서 지켜본 교사가 분쟁의 정도나 아이의 상태에 따라 이야기를 나누고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아이는 선생님이 함께 놀아주기도 하면서 놀이를 유도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함께 놀기보다는 지켜보는 자세이다.

③교사와 교사

원의 아이들 이름을 서로 다 알고 있어서 마당놀이를 할 때는 반구분 없이 서로 도와준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처리한 내용을 담당교사에게 설명해준다. 또한 서로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서 지켜 본다.

5) 행사

①소풍(불과 가을에 있고, 4~5세를 대상으로 반별로 갔다.)

여기에서는 5세 소풍을 소개하겠다.

*사전 준비는 일단 답사를 다녀오고 일과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장소는 자연사 박물관

*인원은 교사 3명과 아동 21명

*개인 준비물로는 도시락, 여벌 옷, 물수건, 물통, 수저통, 휴지, 가방, 모자, 체육복

*공동준비물은 원에서 준비해 준 간식, 카메라, 악

*교통수단은 전철과 걸기(약 1시간 정도 걸린다.)

*시간은 9:30에 출발, 오후 4:00에 도착

*박물관 관람-도착하여 4개의 방을 한시간 정도 관람하였다. 일단 주의점과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한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신기하게 느낀 것을 선생님에게 보라고 하면서 재미있어 했다.

*점심-선생님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음식을 바꿔 먹거나 나눠 먹으면서 재미있게 먹었다(일본에선 원래 음식을 함께 나눠먹지 않는다.)

*박물관 밖-넓은 연못에 거북이, 물고기, 천둥오리, 연꽃 등이 많고 넓은 잔디와 여

러가지 꽃이 있는 화단이 있어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구경하고 나뭇잎과 꽃을 꺾기도 한다. 민들레 꽃으로 시계 목걸이 반지를 만들어 온 몸에 장식하면서 신나게 한시간 정도를 놀았다.

*박물관 근처의 공원-여러가지의 놀이시설과 기구가 있어서 골고루 다 타보고 신나게 놀았다. 특히 혼자서 타기 어려운 커다란 타이어를 여러 명이 협력하여 타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는 곤충 잡는 일에 열중하고 새를 좋아하는 아이는 비둘기를 따라다니면서 흉내내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한시간 정도를 놀았다.

지금까지 애신보육원에서 연수하면서 바깥놀이에 대해 보고 느낀 것을 정리해 보았다. 일본은 보육원에 작게라도 마당이 있고, 근처에는 공원이 여러 곳 있다. 동네엔 집집마다 집 앞에 꽃이나 나무, 물고기 등을 키운다. 그러기에 아이들이 늘 자연을 접하면서 자연물의 성질을 알고 자연의 성질을 이용하여 놀이를 만들면서 논다. 자연과 함께 어울려 자연의 일부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작은 마당도 없고 근처에 공원도 없는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 [KITA]

<<MEMO>>

어린이 속의 TV

이운경(아현어린이집 교사)

1. TV와 함께 자라나는 어린이들

TV의 보급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보고 듣는 모든 정보들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아이들 사이에도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인기있는 주인공은 그들 사이의 대화에 중심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은 또 그러한 만화주인공의 캐릭터가 그려진 옷이나 신발을 입고 싶어하고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과 만화 속의 주인공을 동일시한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나 실사영화등은 소리·효과·색채·장면등이 자극적이고 화면편집도 빨라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에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아이들의 문화와 그들을 둘러싼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 교육으로 다가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영·유아시기에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출되어있는 TV화면에 대해 고민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

2. 최근 어린이 만화영화에서 보여지는 폭력의 유형과 문제점

(1) 만화영화의 장르별 구분 없이 거의 모든 어린이 만화영화에서 범죄, 형무소, 악당, 경찰과 형사 등 범죄와 관련된 등장인물과 공간적 배경이 삽입되거나 중요한 장치로 설정되어 있다. 총, 칼, 도끼, 폭탄, 각종 레이저 무기, 로봇 등 원시무기에서 첨단무기까지 살상용 무기들이 빠짐없이 보여진다. 특히 코믹만화에서는 총기, 무기 등이 일상생활의 에피소드에서 과장된 폭력을 보여주는데 이용되고 있다.

(2) 특별히 잔인한 살상장면 보다는 시

리즈 전체에서 폭력의 정당화와 보다 많은 폭력을 즐기기 위한 이야기 구도가 반복적으로 전개되어 부분장면의 폭력성보다 폭력적 메시지의 영향력이 더욱 우려된다.

(3) 폭력적 주제를 일상적 사건으로 전개하는 가운데서 보다 잔인하고 강도 높은 폭력만이 일부 문제로 인식된다.

(4) 인명의 살상이 아닌 로봇류, 괴물에 대한 파괴와 자연, 건물에 대한 대물폭력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이같은 폭력

은 폭력이 아닌 것인양 오도된다.

(5) 등장인물의 거의 전부에게서 폭력에 대한 직접적 피해의 결과나 고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6) 욕설 등 비어나 속어 뿐 아니라 잔

3. TV시청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TV가 어린이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TV시청 행위가 어린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유형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TV시청은 어린이들의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과다한 시청이거나 잘못된 자세에서의 시청일 경우이지만 TV시청이 어린이들의 신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다양하다.

둘째, TV시청은 어린이들의 학습과 지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텔레비전은 어린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친다.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가르치며 언어와 생활 습관을 교육하고 인간관계의 기본 틀을 익히게 한다.

셋째, TV시청은 어린이들의 독서 습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활자 매체인 책과 영상 매체인 텔레비전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일 수도 있지만 경쟁적이거나 서로 갈등 관계일 수도 있

인한 대사, 신음소리, 소리지르기, 경멸적 어양 등 언어의 폭력이 과다하다.

(7) 배경음악과 효과음 등 음향적 폭력으로 폭력의 효과를 확대하고 있다.

다. 지나친 TV시청 때문에 영상을 통한 메시지 소통에만 익숙해 질 경우, 아이가 사고력과 주의력이 필요한 독서 행위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적 관계나 생활양식, 습관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컨대 대화하는 방법, 상대를 설득하는 요령, 윗사람을 공경하는 태도, 아랫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아량, 참는 버릇, 가난한 이웃을 돕는 자세 등도 TV시청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다섯째, TV시청을 통해 어린이들의 공격 성향이 촉진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폭력영상물의 영향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다음 세가지 이론이 있다.

하나는 모방이론이라 불리는 것으로 A. Bandura가 주창자이다. 폭력영상물은 시청자로 하여금 범죄와 공격행동의 모방을 촉진시키며, 그렇게 잠재된 모방은 그들로 하여금 필요한 단서가 제공될 경우,

공격과 범죄행동을 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점화이론이라는 것은 Berkowitz가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폭력영상이 단지 모방능력을 강제화시킬 뿐 아니라, 시청자들로 하여금 범죄와 공격에 대한 정서적 동조성과 준비성을 야기시켜서, 비교적 즉각적인 공격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모방이론보다 더 강력하게 폭력영상물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컨대 '사건 25시'나 '경찰청 사람들' 혹은 폭력사건에 대한 상세한 보도가 나간 후 유사한 범죄가

4. TV시청지도시 유의점

- 1) 직접 경험의 기회를 확대한다.
- 2) 적당한 TV시청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 3) 프로그램 내용을 선별해서 시청한다.

내용을 선별하는 것도 가정에서의 올바른 TV시청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하겠다.

첫째, 균형잡힌 프로그램 시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오락물 등 특정 장르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프로그램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실의 세계와 공상 또는 상상의 세계를 식별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공상만화 또는 가상적 드라마 등이 현실로 착각될 정도로 꾸며져 있는지의 여부를 관찰해서 어린이의 TV 시청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이유는 이런 Berkowitz의 점화이론으로 잘 설명된다.

셋째이론은 점화이론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사람들 속에 내재된 공격욕구나 범죄욕구가 폭력영상물의 시청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발산되므로, 오히려 범죄행동이나 공격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론이다. Feshbach와 Singer가 이 이론의 주창자이나, 특별히 공격욕이 높은 사람에게는 부분적으로 옳은 해석이지만, 보편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며, 특히 14세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점화이론은 설명력이 낮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시청시간의 통제요령과 함께 프로그램

셋째, 어린이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용 가운데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적절한지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돈, 폭력, 권력 등의 파행적 수단으로 문제를 푼다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어린이 접촉을 막아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간묘사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섯째,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도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거친 말투, 비속어, 버릇없는 말투 등 어린이들이 배워서는 안될 언어사용이 빈번한 프로그램은 경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4) 올바른 TV 시청자세를 유지한다.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자세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좋은 습관을 길들여 주는 일도 중요하다.

먼저, TV 수상기의 크기에 따라 화면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청에 임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둘째, 옆으로 눕거나 턱을 쥔 자세, 또는 베개를 베고 누운 자세로 TV시청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바른 시청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한 번 시청을 시작한 뒤 장시간

여덟째, 프로그램 시청 후 어린이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관찰하여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동안 지속적으로 몰입하는 시청습관은 눈의 피로는 물론 정신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TV시청 후 20-30분 내외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시청자는 무비판적인 멍한 상태에 빠진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따라서 몰입해서 장시간 시청하는 것을 피하고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시청에 임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넷째, 어린이 혼자 폐쇄적인 상태에서 TV시청에 몰입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5. 맺음글

이러한 고민의 과정속에서 요즘 가장 인기있는 만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모니터 작업을 하였다. 실제로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의 내용을 직접 검토해 봄으로써,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일곱째, 광고내용의 부적절성 여부도 평가기준의 하나이다. 어린이에게 접촉될 경우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제반 역기능적 폐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프로그램 선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알아보고 올바른 지도의 방법을 모색하려 하였다. 또한 현장에서는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해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 많은 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폭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연령에 맞고 교육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어린이 시간대에 방영되는 만화 프로그램을 모니터하

는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첨부된 자료 (모니터 보고서, 보육시설의 TV·Video 시청 실태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의 과제들을 토론해 보자.

- ① 영·유아 시기에 TV, Video물의 시청이 미치는 영향(긍정적 또는 부정적)
- ② 어린이집에서의 시청시 교사의 역할
- ③ TV나 Video물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놀이문화 속에 교사는 어떻게 개입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MEMO>>

4. 가정에서의 지도와 부모와의 연계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KDTA]

< 참고 자료 >

◆ 계간 『아침햇살』, 1996 가을, 김기태 '어린이 속의 TV'

◆ 1994 YMCA 폭력영상물 토론회 자료, 문용린, '어린이 폭력영상물 노출, 이대로는 안된다'

모니터 보고서 1

『소년기사 라무』

이 선 미(아현어린이집 교사)

I. 머리말

매일매일 TV앞에 앉은 어린이들에게 TV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먹는 것, 입는 것, 사회적 규범, 상상의 세계를 TV는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들은 TV를 통해 특정상표의 옷이나 신발, 음식에 대한 정보를 얻고 노래나 가수, 탤런트를 스타로 삼으며 이를 꿈꾸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 동경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어린이물이라고 오후 5-6시 사이에

4개 방송사에서 내보내는 만화는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요즘 만화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를 알기위해 『소년기사 라무』를 3일간 모니터하였다. 아이에게 비친 공상과학만화의 세계는 과연 상상의 나래를 펴고 용기와 모험심을 키워주는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자.

II. 조사 방법

1. 모니터 기간 :

1997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

2. 모니터 대상 :

MBC에서 매주 월, 화, 수,
오후 5:20 - 5:50 까지 방영되는
『소년기사 라무』

3. 모니터 기준 :

만화의 배경, 주요인물의 외모와 성격, 여성묘사시 문제점, 폭력정도, 폭력도와 사용되는 언어의 문제점 등을 세부적으로 모니터하였으며, 총평에서는 이 공상과학 만화가 어린이에게 우주에 대한 상상력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가의 차원에서 모니터하였다.

III. 모니터 결과

1. 만화의 배경

『소년기사 라무』는 배경을 가상의 공간으로 설정하여 게임처럼 한 공간에서 적을 무찌르면 다른 가상공간을 이동하

게 하였다. 현실공간에서의 폭력사용을 교묘히 빠져나가, 폭력을 허구공간으로 가지고 가서 만화의 폭력성이 대한 문제

제기를 살짝 비켜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공간, 게임화된 공간에서의 폭력이라도 이를 보는 주시청자인 어린이들이 실제로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쉽게 모방하고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2. 주요인물의 외모와 성격

주요등장인물은 소년기사 라무와 더싸이터라는 기사, 파르페, 카카오라는 여자아이들, 라무의 어깨에 있는 피규어 있고 악당으로 블랙라무, 피크다크, 이들의 부하인 남자, 여자가 있다.

주인공 라무는 중학생 정도의 연령으로 용감한 기사로 적을 무찌르며 극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 피규어는 라무의 어깨에 있는 말하는 로봇으로 입에 디스크를 넣으면 라무가 조종하는 로봇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 더싸이터는 턱시도를 변형한 복장을 하고 어깨에 뱀모양의 보조자를 두고 있다. 파르페와 카카오는 여자아이로, 카카오는 흑인으로 흰수영복에 망토를 걸친 상태로 나오며, 둘다 매우 의존적이며 수동적인 성격으로 나온다.

악당으로 나오는 블랙 라무는 유리관 속에서 까만 옷을 입고 있으며, 피크다크도 몸이 모두 까맣다. 블랙 라무의 남자 부하는 히스페닉계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여자 부하는 전체적인 몸의 균형에서 가슴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모두 서구적 인물이 중

심이 되며 국적불명의 옷을 입고 나타나며 아이의 복장이라 볼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특히 악당은 명칭과 색에서 '블랙' '다크' 등 특정 인종을 지목하는 경향이 강하다.

3. 여성묘사시 문제점

① 여성은 선정적인 복장을 하고 있으며 극의 전개에서 주된 역할이 없고, 라무를 따라다니며 문제를 일으키고 보호받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6월30일자 방영분에서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화살을 구하려 가는데서 여자들은 다이아몬드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자1 : 그게 몇 캐럿이나 될까?

남자 : 여자들은 그저 보석이라면 사족을 못써.

라무 : (흰등면)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여자1 : 다이아

여자2 : 윈드.

여자1,2 : 아나, 갓게.

여자1 : 아깝게 (다이아몬드 한알을) 진짜 쏘려나.

여자1 : 아까운 다이아몬드

여자2 : 너무 아깝다.

② 여자들은 매우 연약하고 늘 소년기사 라무가 보살피 주어야 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으며, 특히 카카오라는 여자아이는 어려운 상황 때마다 기절을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7월 1일 방영분에서 간헐적인 여자들은 라무가 구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자1,2 : 도둑취

여자1 : 괜찮아. 너무하고 더싸이터가 구해줄거야

여자2 : 빨리빨리 너무

③ 악당 부하중 여자는 가슴이 지나치게 크게 묘사되며 7월1일 방영분에서는 가슴부분만 클로즈업되어 끝을 맺었다.

4. 폭력정도

큰 격투장면이 한회에 두 번 정도 있으나 한두번의 가격(주먹질)이나 공격이 아닌 몇 분간의 싸움이며 동료간에 일상적인 말다툼이나 가격이 자주 보여진다. 싸우는 장면에서는 화면의 급격한 전환이나 돌출로 폭력의 강도를 높이며 음향이나 효과음으로 이를 증폭시킨다.

6월30일자 방영분에서 더싸이터의 말을 모두들 무시하자, "너희들이 또 나를 무시했어"하며 기관총을 사방에 대고 쏘는 장면이 나온다. 7월2일 방영분에서는 라무가 라이터로 블랙피규어를 태우는 장면이 길게 나온다.

이러한 폭력은 정의인 라무와 악당인 블랙라무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정의를 위해 행하는 라무의 모든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5. 폭력도구와 사용되는

언어의 문제점

『소년기사 라무』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칼, 칼에서 나오는 광선, 화살, 기관총, 성냥, 가스, 폭탄, 라이타, 거미모양의 괴물, 기타 로봇이나 괴물등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공격, 폭력성을 지닌 언어 사용 또한 단 3일 방영분임에도 불구하고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으며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다.

<적의, 공격, 폭력적인 언어사용의 예>

- 굶방 죽으면 재미가 없잖아
- 난 개그를 모르는 사람은 사냥취급도 안해
- 오늘은 정말 끝장을 내주마
- 본때를 보여주자
- 별거 아닌 것들이 까놓고 있어
- 오늘은 진짜 완벽하게 끝내주마
- 당번에 끝내주마
- 두 사람만 죽으면 게임이 끝나는데 그걸 신신해서 어쩌지
- 축하선물로 지옥여행을 보내주겠다
- 닥쳐
- 뭐가 보여야 싸우든 말든 하지
- 계속 먹고나가 블랙라무를 없애버려

폭력적인 언어사용뿐만 아니라 이름과 명칭상의 영어식 조어, 전투용어사용시 영어식 조어가 남발하고 있다.

- 라무, 피규어, 파르페, 카카오, 더싸이터, 스포데빙, 피크다크, 텐디, 리터, 알데파이어블랙, 총 플레이 게임, 카이제, 한이어, 블랙라무, NOW LOADING, SET UP

IV. 결론 및 제언

공상과학만화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한다. 요즘 새로이 나타나는 성향은 SF와 마법, 컴퓨터, 게임을 혼합시킨 형태이다. [소년기사 라무]는 이의 전형적인 예로 한화 한화가 마치 컴퓨터 게임인 것처럼 가상공간의 이동을 배경으로 마법의 힘과 컴퓨터의 힘을 빌려 악령의 가상공간을 깨고 적을 무찌르고 정의를 실현시킨다는 구조이다. 여기서 우리는 숨겨진 폭력의 위험함을 느낄 수 있다. 현실공간에서의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라 가상공간이라 하더라도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아들에게는 실제로 피가 똑똑 떨어지는 폭력만큼 위해가 크며, 또한 현실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을 가볍게 다룰 수 있고 이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만화에서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속에서 정의를 위한다는 목적이 있으면 어떠한 폭력도 용인된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소품을 상업적으로 팬시제품이나 장난감, 게임등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제작시 고려된 만화라, 아이들이 일회적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이나 게임으로까지 연장되어 아이들 놀이문화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그 영향력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년기사 라무는 그림이 매우 정교하고 색상이 매우 화려하며 자극적이다. 단 1초도 쉬지 못하게 하는 긴박감으로 아이들을 잡고 있으며 화면의 전환이 뮤직비디오 이상으로 빠르다. 이러한 만화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영상매체가 아닌 사고력과 주의력이 필요한 다른 매체를 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걸려지지 않은 폭력 장면은 아이들의 정서에 심각한 위해감을 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제는 상상의 세계나 미래사회가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로봇이나 컴퓨터는 싸우는 도구가 아닌 우리의 사회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임을 나타내는 공상과학만화, 아이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사람과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만화, 미래에 대한 진취적인 의지를 키울 수 있는 만화의 제작이 요청된다. 또한 컴퓨터 게임이 널리 보급된 요즈음 만화를 통해 또하나의 게임을 만드는 것이 아닌 새로운 놀이형태를 제시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과학적 태도와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만화의 제작이 아쉽다. [KDTA]

<<MEMO>>

모니터보고서 2

『 순정 만화 』

서 은 희 (어깨동모어린이집 교사)

1. 머리말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에게 남, 녀간의 애정을 다룬 이야기는 큰 흥미꺼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예전부터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려왔던(우리들의 청소년기를 돌아보면 캔디와 베르사이유 장미를 떠올리게 된다.) 순정만화나 소설, 영화 등이 이제는 그 연령이 낮아져 어린이들에게까지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송되었거나 방송되고 있는 순정 만화들은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제작된 것을 수입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자연히 그 양식이나 내용이 서구적이거나 일본의 문화를 반영한 것들일 수밖에 없다. 이국적인 배경과 시대 설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전 근대적인 여성상을 그대로 표현

하므로써 우리 어린이들의 정서와 바른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현재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만화영화 중 순정 만화로 분류될 수 있는 만화 '들장미 소녀 린'과 '달의 요정 세일러문'을 모니터해 보았다. (달의 요정 세일러문)은 순수한 순정 만화라기 보다는 SF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분류하기가 어려웠으나 이 만화가 여성의 '성'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모니터하기로 결정하였다.

연속물로 방송되고 있는 만화를 시기를 정해 몇 편만 모니터했기 때문에 만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을 이해하고 모니터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연속물이지만 모니터하는 시기에 방송된 방영물에 한해 충실히 모니터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밝힌다.

2. 조사 방법

- 1) 모니터 기간 : 1997. 6. 30 - 7. 7
- 2) 모니터 대상 : SBS에서 매주 월, 화, 수, 목 오후 5시20-6시5분까지 방송 '들장미 소녀 린'과 KBS 2에서 매 주 월, 화, 수, 목 오후 6시10 - 6시30분까지 방송되는 달의 '달의 요정 세일러문'

- 3) 모니터 기준 : 주제, 시대적 배경, 등장 인물의 성격, 신분차별과 성차별을 드러내는 대사 및 행동, 주입되어지는 가치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하였다.

3. 모니터 결과

들장미 소녀 린

1) 전반적인 줄거리

현대 영국의 상류사회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몽고메리 백작의 두 번째 부인의 딸인 린은 몽고메리가의 상속 문제로 가족들과 갈 등을 겪게 된다. 만화는 린의 활달하고 착한 성품으로 인해 정식 상속녀로 린이 인정받아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린과 친구들 간의 우정과 사랑을 주 내용으로 그리고 있다.

2) 주요 인물의 외모와 성격

린 (주인공) - 금발의 곱슬머리며 머리를 양 갈래로 나누어 묶음. 주로 리본이 달리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드레스를 입음. 밝고 솔직한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돌아가신 엄마가 말씀하신 훌륭한 숙녀가 되려고 노력.

에드워드 (린의 남자 친구) - 금발의 파란 눈. 정장을 주로 입음. 린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린을 격려해 주고 옆에 있어 줌.

세라 (린의 이복 언니) - 금발의 긴 머리. 드레스를 입음.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냘프고 연약해 보임.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돌보며 함께 지내고 있음. 린과 할아버지 사이에 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함.

아더 (세라를 좋아하는 남자 친구) - 금발의 파란 눈. 키가 크고, 미남형.

비비안 (승마부 부장) - 파란 머리의 파란 눈. 얼굴이 사납게 표현. 에드워드를 좋아하나 에드워드가 린을 좋아하자 린에게 심한 질투심을 느끼면서 린을 괴롭힘.

소피 (린의 친척딸 되는 동생) - 보라색 머리의 파란 눈. 드레스 차림에 리본 팔찌를 하고, 인형을 항상 안고 다닌다. 상속 문제로 린을 쫓아내기 위해 몽고메리 저택에 왔으나 린을 좋아하게 되어 엄마와 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

* '들장미 소녀 린'은 처음 보는 순간 캔디가 떠오를 정도로 주인공들의 외모와 성격, 줄거리가 비슷했다.

3). 주제가 가사

그대의 작은 꿈을 내게도 들려줄 수만 있다면 미래의 부푼 꿈을 모두 전하고 싶어투명한 아침 햇살 향기로운 꽃내음 언젠가 함께하고픈 너의 아침 가슴에 품어 두었던 나만의 꿈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 언제까지

* 가사의 뜻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노래가 나올 때 보여지는 장면을 보면 동화 속에 나오는 백마를 탄 왕자님처럼 에드워드가 말에 린을 태우고 환상적으로 달리는데, 이런 장면들은 특히 여자 아이들에게 '신데렐라' 컵

플렉스를 갖도록 조장할 수 있다.

4). 문제되는 장면

-6월30일에 방영된 '소피와의 이별' 중 (몽고메리 저택에 소피의 엄마가 찾아와 소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소피: 너를 꼭 쫓아내야만 하나요?

엄마: 난, 엄마 말을 듣지 않는 애는 정말 싫다

소피 (갈등하는 얼굴 표정으로 엄마를 보고 서 있음)

*소피가 칼을 들고 마굿간으로 가서 린의 말인 앤드류스의 안장을 자르려고 하나 심하게 갈등을 하다 시행에 옮기지 못한다. 소피가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표현된 소피의 얼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할 정도로 묘사되었다.

소피: 너를 쫓아내고 싶진 않지만 언니에게 미운받고 싶지 않아. 언니 좀 더 나쁜 애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전 옛날에 쫓아 낼 수 있었을 텐데. (갈등하다 구렁이에 빠짐)

소피가 산에 갔다 구렁이에 빠져 다친 것을 언니가 구해 주었다. 소피가 누워 있는 침대결에 소피의 엄마가 있다. 소피가 의식을 회복한다.

엄마: 무사해서 다행이야

소피: (강격하며) 엄마, 제 걱정 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 당연하지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야

소피: (당황하며) 엄마!

이 때 고모 할머니와 언니 방에 들어 온다.

고모 할머니: 소피야, 어쩌다 술에 혼자 들어 갔니?

엄마: 이건 다 천태문이에요. 소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언은 안 보이는데서 우리 소피를 걱정했나봐요.

고모 할머니: 아니, 그걸 너가

엄마: 그렇지 소피?

소피: (갈등을 하다 소리친다) 그만 뒤로 언니. 언니는 내가 다친 것보다 몽고메리가의 재산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싫어요. 언니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전 언니는 없는 편이 낫다구요. 언니 싫어. 어서 나가세요.

엄마: (얼굴이 거울 깨지듯이 산산조각으로 깨진다)

(엄마와 고모 할머니가 방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나눈다.)

엄마: 저 아인 어렸을 때부터 내 딸 이러면 뭐든지 다 들었는데. 그래서 저 아이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줄 알았는데

고모 할머니: 지금까지 당신은 소피의 진짜 속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당신은 언을 쫓아내고 싶어했어요. 소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전데 언니가 자신을 싫어할까봐 소피는 지금까지 줄곧 혼자서 괴로워 했던 겁니다.

* 신분 차별을 나타내는 말들

- 마님. 아가씨. 백작. 자작. (나이가 아주 많은 집사와 일하는 아줌마가 아이들에게 꼭 존칭을 사용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들에게 반말을 한다)

- 린같은 애하고 놀러온 게 아니야

* '소피와의 이별'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심하게 왜곡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재산을 얻기 위해 딸을 이용하고, 엄마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를 해치려하고, 또 그로 인해 상처받는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 7월 1일, 7일 방송된 내용 중에서 (말을 듣고 있는 캐시에게 비비안이 이야기한다.)

비비안: 캐시 그건 일은 1학년 부원한테 맡겨.

캐시: 하지만 주장, 나도 1학년 부원이에요.

비비안: 너는 특별한 애야. 다른 1학년 부원애들과는 다르다구. (문을 부름으 떠머) 니 마음 대로 해

비비안: 바보같은 말. 바보같은 말. (말에게 채찍질한다)

(선이 학교 승마장에 나갔다가 돌아가는 모습을 비비안이 보고 혼잣말로 이야기한다.)

비비안: 총, 그대 어디 한 번 열심히

해봐라. 하지만 니가 아무런 발버둥쳐봐도 넌 결국 대회에서 실패할거야. 너한테 실망한 애드워드는 니를 다시 보게 되겠지?

(세라가 연못가에 앉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더가 다가온다.)

아더: 안녕, 세라. 오랜만이야? 그냥 네가 좀 신경이 쓰여서.

세라: 난 괜찮아.

아더: 너의 나쁜전은 바로 그전거야. 슬픈 일은 늘 혼자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야.

(아더가 앞에서 걷고 세라가 뒤따라 걷는다)

아더: 세라, 너에게도 꿈이 있지 않니? 너에게도 아름다운 꿈이 있을거야.

* 이 장면에서 아더 목소리를 내는 성우의 목소리가 청소년의 목소리라기 보다는 성인 남자의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다. 세라와 아더는 친구 사이임에도 성인의 아더가 어린 세라를 달래는것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다.

(선이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다 엄마가 늘 하시던 말쑥을 떠올린다.)

엄마: 넌, 훌륭한 숙녀가 되어야 한다. 착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언젠가 그 멋진 숙녀의 문을 여는 거야

세라: 전 반드시 훌륭한 숙녀가 되겠어요.

브로이데 (베즈, 카라메오스의 부하) - 보라색 머리. 이마에 뿔이 있고, 검은 장화를 신음. 몸에 달라붙는 검은색 수영복과 같은 옷을

달의 요정 세일러문

1) 전반적인 줄거리

세일러문의 문 크리스탈을 뺏으려는 블랙문의 악당들과 5명의 세일러문과의 싸움을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세라와 레온의 사랑 이야기를 또 한 축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2) 주요 인물의 외모와 성격

세라 (주인공) - 금발의 긴 머리. 파란 눈. 주로 짧은 치마를 입음. 레온을 아주 좋아함. 변신하면 세일러문이 됨. 손에 잡을 수 있는 둥근 모양의 크리스탈을 갖고 있으며, 이마에 금색 띠를 하고 장갑을 끼고 붕을 가지고 있다. 옷은 파란색 짧은 세라복을 입는다.

유리, 리타의 2명 (세라의 친구들) - 파란 머리. 금발. 흑발. 갈색의 긴 머리. 이 중 한 아이만 컷트 머리. 팔이 없는 달라붙는 윗 옷에 모두 아주 짧은 치마나 짝 달라붙는 바지를 입음. 변신하면 세일러문이 되며 빨강, 파랑, 초록, 주황색의 세라복을 입고, 장화를 신으며 장갑을 끼고 머리에 띠를 두름.

레온 (세라의 남자 친구) - 흑발의 검은 머리. 세라를 좋아하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부러 세라를 멀리하고 있음.

변신하면 텍시도맨이 되는데, 뒤에 텍시도 옷을 입고 눈 가면을 쓰고 중절 모자를 씼.

베즈, 카라메오스, 베르제 (블랙문의 루테우스의 부하) - 어깨가 노출되고 수영복과 같은 옷인데 엉덩이 부분이 짧은 치마를 기본으로 입으며, 한 명은 가슴 가운데 점이 표시되어 있어 아주 선정적으로 보임.

3) 주제가 가사

머양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면
살면서 너에게로 다가가
모든 것 고백할텐데
전화도 할 수 없는 밤이 오면
자꾸만 설레이는 내 마음
동한 속 마법의 세계로
손짓하는 저 달빛
빛나는 저 멀리서 빛나고 있는
꽃결같은 우리의 사랑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건
꼭 우연이라 할 수 없어
기적의 세일러문

- 가사의 내용이 성인 남,녀의 연애편지가 아닌가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서로가 그리는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고 있다. 주제가만 들어서는 이 만화는 성인용 애정 만화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4) 문제되는 장면

- 6월 30일 방송된 내용 11에서

장면1) 레몬이 여자 아이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세라와 친구들이 있는 곳을 지나다 멈춘다.

세라: 레몬, 저 분은 누구예요? 사촌 여동생? 사촌 할머니?

레몬: 너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관심이 지나치군 그대.

떨어지 않게 꼭 잡아 세라.

세라: 레몬, 저 아이는 누구야?

레몬: 좀 귀찮게 구는 앤데 신경쓰지 마.

장면2)

고양이: 너 그렇게 먹다간 똥보 세일러 문 된다.

세라: 상관없어. 다른 여자 친구가 생긴 레몬한테 귀찮게 궁기랄 하느는 나같은 것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장면3) 레몬(텍시도맨)이 쓰러져 있는 세라 세일러문을 깨운다.

레몬: (세라를 깨우며) 세라, 날 용서해줘

세라가 깨어나는 장면에서 세라의 다리부터 꼭 보여주면서 세라의 얼굴이 보여지는데 이 때 세라의 짧은 치마가 바깥에 드러난다.

세라: 레몬, 따뜻해.

균발의 황자(레몬)와 공주(세라)가 손

을 마주 잡고 서로 행복해 하는 그림이 나온다.

장면4) 브로이데가 이마의 뿔을 잡아다 니자 번쩍이는 칼로 번갯. 칼을 든 브로이데가 세라를 안고 있는 레몬의 등을 향해 칼을 내리친다. 이 때 세라가 크리스탈볼의 빛을 쏘서 브로이데의 뿔이 하얗게 변한 뒤 가루로 되어 흩날려 흔적이 없어진다.

장면5)

세라: 레몬하고 가장 친한 친구의 사촌 여동생이야.

세라: 그전, 레몬은요?

세라: 어머 애 좀 났. 우리 그이는 직투심이 강해서 그 소리 들으면 날리가 날다구.

세라: 아호, 우리 레몬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래요.

- 7월 1일 방송된

'제스 챔피언은 누구' 11에서.

장면1)

베르체: 쿠앙이 왜 하찮은 인간 따위가 되기로 결심할 거냐?

베즈: 배신자 마음을 어떻게 알겠니?

카라메오스: 이제 저 아인 동생도 아무것도 아니야.

루데우스: 우리 복색문에는 배신자는 필요없다.

베즈: 베르체는 혼자만 공을 세우려고

카라메오스: 베즈 언니, 뒤에서 지켜보다 속적 끼어들면 되잖아요

루데우스: 너희들만 믿겠다

루데우스: 모든 공적은 나, 루데우스. 하찮은 너희들은 인공을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바치는 한낱 종개에 불과하지

장면2) 베르체가 체스타위에 사람으로 변장해 나타난다. (이게가 드러나는 짧은 미니 원피스를 입었는데 다리부터 위로 천천히 보여줌)

베르체: 게인의 꽃은 어디까지나 승리하고

세라: 최선을 다하는게 중요한거 아닌가요?

베르체: 그거야 패배자들의 구차한 변명이지

장면3) 베르체가 가슴 가운데 많이 파진 수영복같은 옷을 입고 체스장에 들어선.

베르체: 누구한테나 칭찬받는 모범생은 싫거든. 지옥으로 보내주마. 유리가 일어나려고 한다.

4. 결론 및 제언

'들장미 소녀 린'은 시대적 배경이 현대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의 복장이나 집, 학교 생활 등이 19세기 후반의 신분제도가 있는 시대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게 하며, 시기, 질투, 모략 등은 주로 아니 거의 99%가 여자 주인공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만화를 보다보면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 여성들의 특성이 이런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소지가 크

베르체: 이전, 그냥 누워있지 않고서, 더 이상 아무 고통도 못느끼게 해줄테니까.

장면4)

베르체: 흉터가 남았으면 어떡하지? 백설같은 내 피부에 흉터가 남는다면 이건 인류의 비극이야.

베즈: 참 안됐다. 베즈: 너, 실패한거 아니겠지?

카라메오스: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멀리멀리 떠나버렸을 거?

베즈: 쿠앙같은 어리석은 바보는 하나도 충분하지 않아.

장면5)

베르체: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다니. 누가 그런 어리석은짓을

유리: 남이 아니야. 내 친구라고.

카라메오스: 우린 모른다. 검은달의 요정으로써 실패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

다는 것이다. 또 시대가 아주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정만화의 내용들은 '린'을 비롯하여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화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달의 요정 세일러문'은 만화의 소재면에서는 진일보(?)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예전보다도 더 선정적이고 노골적이며 혹, 백의 논리로써 아이들의 사고를 단순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수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올바르게 이끌어 건전하고 바른 이성관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데 소위 '순정'이라는 장르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순정만화 영화의 주인공들은 외모와 배경이 모두 서구적이며 어린이들 사이의 애뜻한 우정을 그린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권성징악의 단순한 이야기 구성과

단편적인 인간유형, 중국에는 결혼으로 귀결되는 허황된 결론을 도출해 냄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있다.

이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제는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정서에 적합한 순정만화를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KOTA

<<MEMO>>

이 책은 권성징악의 순정만화 '순정'을 소개하는 책이다. 순정만화는 어린이들에게 이성관을 형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순정만화는 서구적인 외모와 배경을 가진 주인공과 애뜻한 우정을 그린 내용으로, 어린이들의 정서에 적합하지 않다. 이 책은 권성징악의 '순정'을 소개하며,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순정만화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KOTA

